

2020.11.5.(목) 15:00
공간사이

2020 충남사회적경제 포럼 -1

사회적금융, 사회적경제에 유용한 자금조달

1차 충남사회적경제 포럼 계획

■ 포럼 개요

- 일시 : 11.5.(목) / 15:00~18:00
- 장소 : 공간사이 (천안시 서북구 늘푸른3길 37, 4층)
- 주제: 사회적금융, 사회적경제에 유용한 자금조달

■ 시간계획

시간	주요내용
14:30-15:00	참가자 등록 및 안내
15:00-16:10	1부. 사회적금융에 대한 이해 1. 사회적금융 현황 및 과제 - 이상진 대표(한국사회혁신금융) 2. 자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안 - 김선영 사무국장(재단법인 밴드) 3. 지역화폐의 의미와 진화 - 김성훈 이사(지역화폐협동조합)
16:10-16:30	휴식
16:30-18:00	2부.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 좌장: 박찬무 이사장(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1. 토론1: 사회적금융 현황 및 과제 - 이영석 사무총장(아산YMCA) 2. 토론2: 자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안 - 정경록 회장(충남사회적기업협의회) 3. 토론3: 지역화폐의 의미와 진화 - 이동근 사무국장(홍동면 주민자치회) 4. 청중 토론

발제문

1. 사회적금융 현황 및 과제

이상진 대표

<한국사회혁신금융>

사회적금융의 현황 및 과제

2020.11.05.

목차

- **사회적금융 현황**
- 사회적금융 과제

사회적경제기업 자금조달 사례(1/4)

• 기술보증기금 + 중진공 +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차입처	차입금액	자금용도	대출일	만기일	상환조건	연금리	대출기간
기업은행(기보)	100,000	운전자금	2019.05.02	2021.04.29	1년거치 원리금균등	1.5%	2년
우리은행(중진공)	150,000	운전자금	2019.08.13	2021.05.28	1년거치 원리금균등	2.3%	2년
한국사회혁신금융	50,000	운전자금	2019.09.10	2022.09.09	6개월거치 원리금균등	3%	3년

• 서민금융진흥원 + 중진공 +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차입처	차입금액	자금용도	대출일	만기일	상환조건	연금리	대출기간
피피엘	70,000	운전자금	2018.11.30	2021.11.30	잔액만기상환	0%	3년
중진공	50,000	운전자금	2020.03.06	2025.03.05	2년거치 3년분할	2.4%	5년
SK미소금융	40,000	운전자금	2020.04.20	2025.04.20	1년거치 4년분할	4.0%	5년

2

사회적경제기업 자금조달 사례(2/4)

• 신용보증기금 + 시중은행(중금리 활용)

차입처	차입금액	자금용도	대출일	만기일	상환조건	연금리	대출기간
국민은행	85,000	운전자금	19.08.29	20.08.27	1년씩 연장	5.21%	1년
기업은행	50,000	운전자금	16.04.22	20.04.24	1년씩 연장	5.6%	4년
기업은행	50,000	운전자금	17.12.15	20.06.17	1년씩 연장	9.5%	3년
기업은행	20,000	운전자금	19.08.23	20.08.21	마이너스 통장	5%	1년
기업은행	18,000	운전자금	20.04.23	25.04.23	원리금균등		5년
기업은행(신보)	90,000	운전자금	19.10.22	24.10.22	원리금균등	2.66%	5년
기업은행(신보)	100,000	운전자금	19.11.01	24.11.01	원리금균등	2.37%	5년

사회적경제기업 자금조달 사례(3/4)

• 신용보증기금 + 신협(2개) + P2P 대출

차입처	차입금액	자금용도	대출일	만기일	상환조건	연금리	대출기간
우리은행(신보)	100,000	운전자금	17.02.03	22.01.10	1년거치 원리금분할	2.5%	5년
우리은행(신보)	100,000	운전자금	19.04.20	24.03.11	1년거치 원리금분할	2.4%	5년
비플러스	70,000	운전자금	2019.10.28	2020.10.30	만기일시	12%	1년
신협A	70,000	운전자금	18.03.09	28.03.09	1년거치 원리금분할	4.8%	10년
신협A	50,000	운전자금	19.11.13	24.11.13	1년거치 원리금분할	3.5%	5년
신협B	50,000	운전자금	17.09.01	22.09.01	17개월거치 원리금분할	3%	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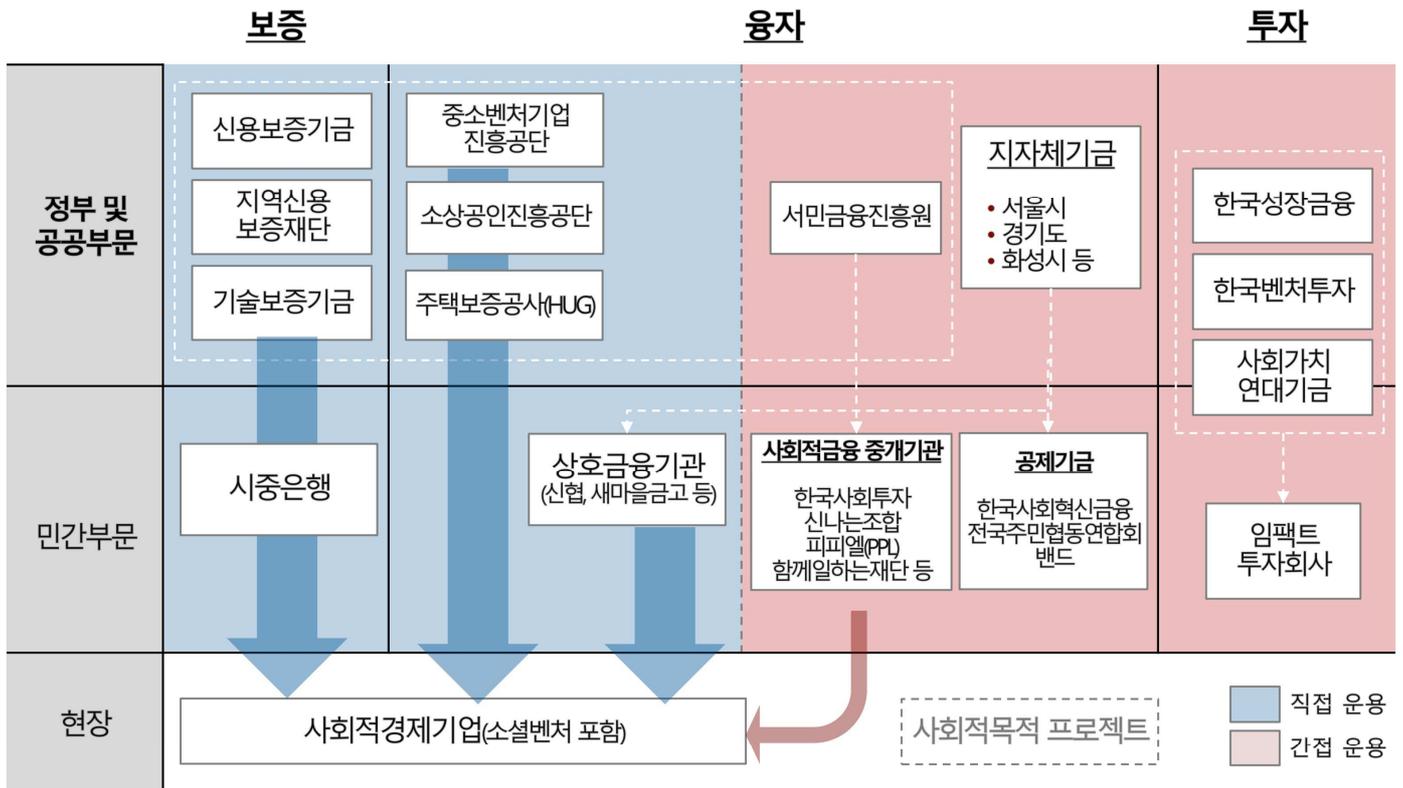
4

사회적경제기업 자금조달 사례(4/4)

• 신용보증기금 + 중진공 + 신협 + 시중은행 + 사회적금융중개기관(6개) + 지역기금

차입처	차입원금	대출일	만기예정일	금리	월상환액	대출기간
신한은행	100,000,000	2019.03.04.	2021.03.04	7.16%	580,000	2년
중진공	200,000,000	2016.04.04.	2021.04.04.	3.90%	306,610	5년
함께일하는 재단	72,700,000	2019.12.13	2022.12.13	3.00%	181,750	3년
지역기금	50,000,000	2020.08.21	2021.08.20	2.00%	33,330	1년
신협A	50,000,000	2017.09.29.	2022.09.29.	3.00%	898,434	5년
한국사회투자	20,000,000	2015.12.30	2020.12.30	2.00%	422,146	5년
국민은행(신보)	300,000,000	2018.03.30	2023.03.29	3.72%	3,167,725	5년
밴드1	100,000,000	2019.06.25	2025.06.30	3.00%	1,519,367	6년
밴드2	29,000,000	2019.06.25	2025.06.30	3.75%	439,478	6년
신나는 조합	50,000,000	2020.08.20	2025.08.25	1.00%	41,660	5년
한국사회혁신금융	138,000,000	2020.01.20	2023.01.20	3.00%	345,000	3년

정책자금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회적경제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6

공공은 자금공급실적을 분기별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단위: 억원)

구분	공공기관	'18년 실적	'19년		'20년 목표 / 실적 (기업수) * 실적: 20.6월말 기준
			목표	실적 (기업수)	
대출	서민금융진흥원	교부액 41.4 기관 대출 30.4	50	63 (94개)	60 / 15 (19)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85	500	639 (277개)	600 / 456 (250)
	소상공인지원시장진흥공단	35	100	84 (159개)	150 / 58 (160)
	신협	95	300	236 (190개)	300 / 217 (234)
	새마을금고		10	30 (22개)	100 / 32 (14)
보증	신용보증기금	1,032	1,000	1,609 (760개)	1,000 / 820 (456)
	지역신용보증재단	135	150	165 (336개)	150 / 99 (186)
	기술보증기금		700	841 (196개)	1,150 / 494 (157)
투자	한국성장금융	141	200	269 (30개)	225 / 121 (14)
	한국벤처투자	63	220	489 (53개)	540 / 287 (36)
소계	-	1,937	3,230	4,425 (2,117개)	4,275 / 2,599 (1,526)

지자체별로 사회적경제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구분	지역	명칭	조성년도	조성액 (억원)	목표액 (억원)	운용기관
광역	서울	사회투자기금	2012	578	-	민간과 협력
	경기	사회적경제기금	2016	120	1,000	신협, 신용보증재단
	세종	사회투자기금	2018	10	30	
	충남	사회적경제기금	2020	20~22 (3년간)	200	신협
	전북	사회적경제기금	2021	60	(100)	민간과 협력
	경북	연구용역 진행중	(2020)	-	-	
	경남	사회적경제기금	2021	20	(150)	
기초	성북	사회투자기금	2014	125	-	민간과 협력
	성동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2014	160	-	민간과 협력
	은평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2015	7.7	-	
	강동	사회적경제투자기금	2018	22	-	
	화성	사회적경제지원기금	2015	629	-	신협
	전주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2020	8	-	민간과 협력

출처) 사회적금융 현황과 과제(19920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국회 토론회 자료) 활용

8

정책자금이 마중물이 되어 시중은행을 통한 민간자금을 공급도 조금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 (총 규모) '20년 6월말 기준 사회적경제기업 대출잔액은 총 9,961억원으로 '19년말 대비 1,463억원(+17.2%) 증가
- (기업유형별) 사회적기업 대상 지원이 7,796억원(78.3%)으로 가장 많으며,
협동조합(1,915억원, 19.2%), 마을기업(205억원, 2.1%), 자활기업(45억원, 0.5%) 순 (하기 내용 참조)

(단위:억원)

구분	2019년 말			2020년 6월말 (잠정)		
	건수	잔액	비중 (잔액기준)	건수	잔액	비중 (잔액기준)
사회적기업	4,284	6,295	(74.1)	5,324	7,796	(78.3)
협동조합	987	2,020	(23.8)	1,318	1,915	(19.2)
마을기업	212	145	(1.7)	307	205	(2.0)
자활기업	87	38	(0.4)	138	45	(0.5)
소계	5,570	8,498	(100.0)	7,087	9,961	(100.0)

은행별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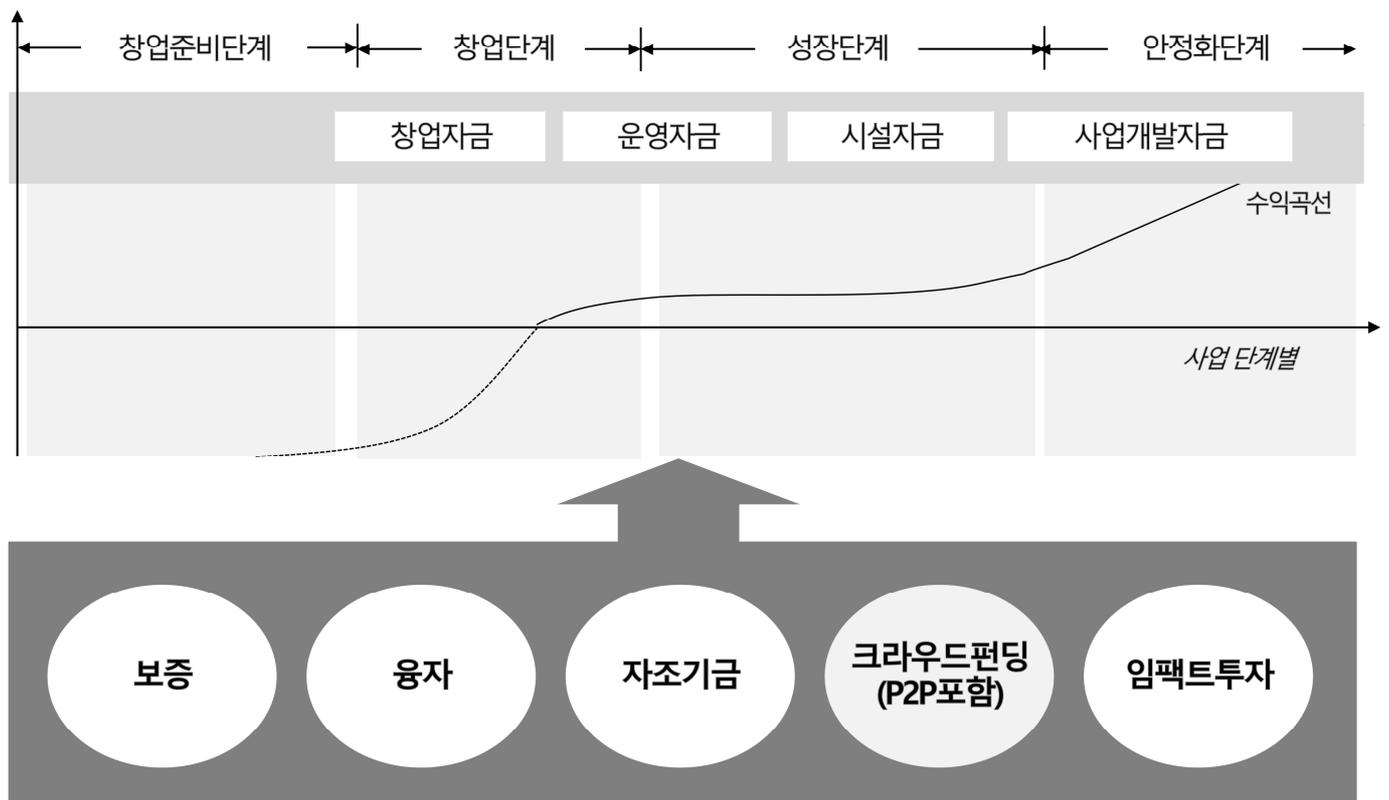
- 기업(2,708억원, 27.2%), 신한(1,903억원, 19.1%), 농협(1,281억원, 12.9%)의 실적이 전체 과반 이상(5,892억원, 59.2%) 차지
- 지방은행은 부산(281억원, 2.8%), 대구(271억원, 2.7%), 경남(163억원, 1.6%) 순

출처) 2020년 제2차 사회적금융협의회 자료(2000715)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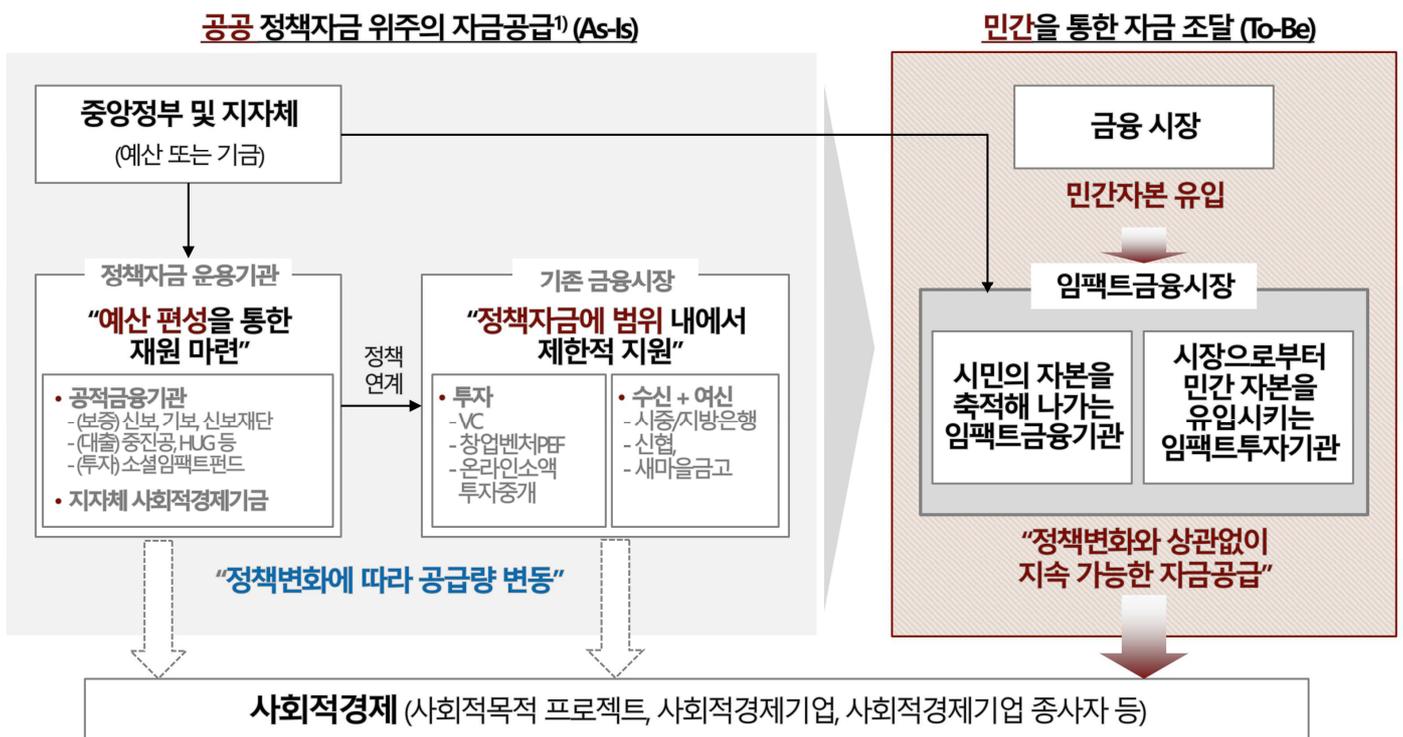
9

자금공급이 늘어나면서 사회적경제기업 입장에서 자금조달 방식이 다양화되고 있으나...



10

...정책자금을 넘어 민간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주 1)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182) 이후 사회적경제를 위한 공공의 정책자금은 2018년 1,937억원, 2019년 약 4,255억원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민간 자본의 유입은 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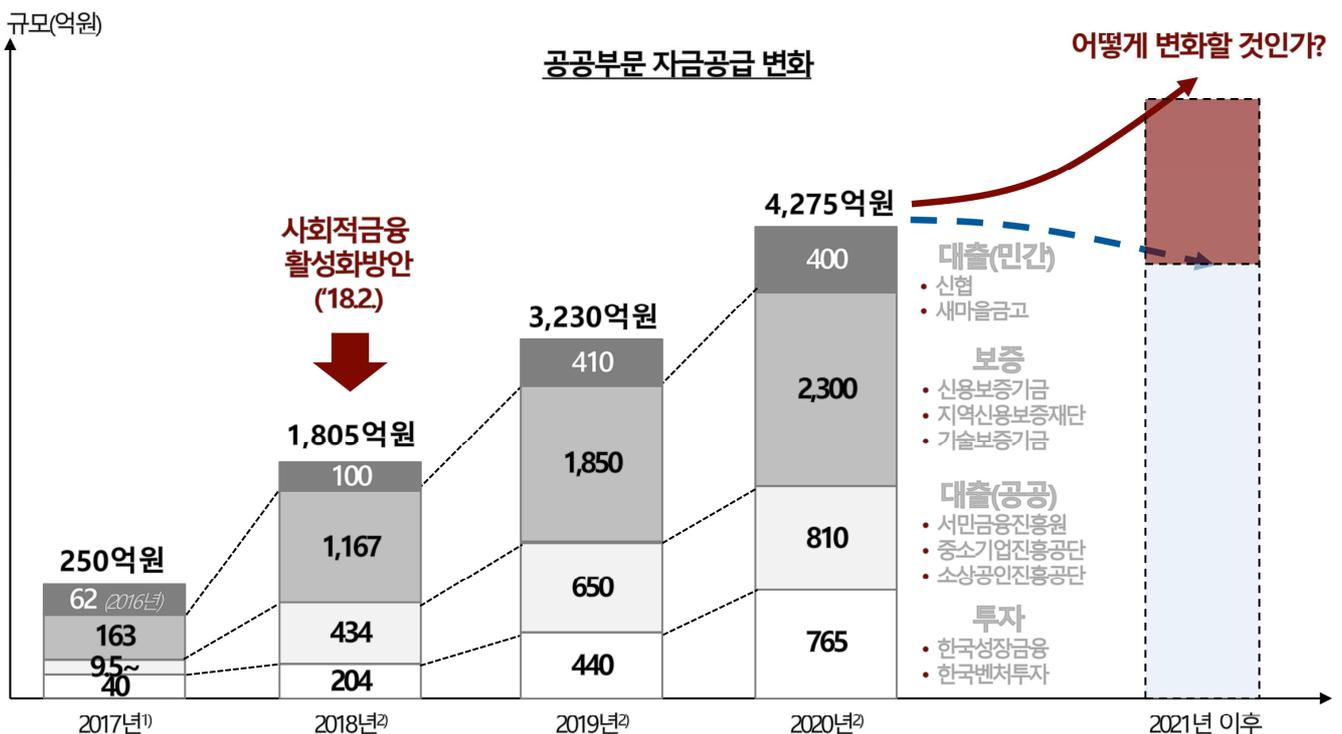
목차

■ 사회적금융 현황

■ 사회적금융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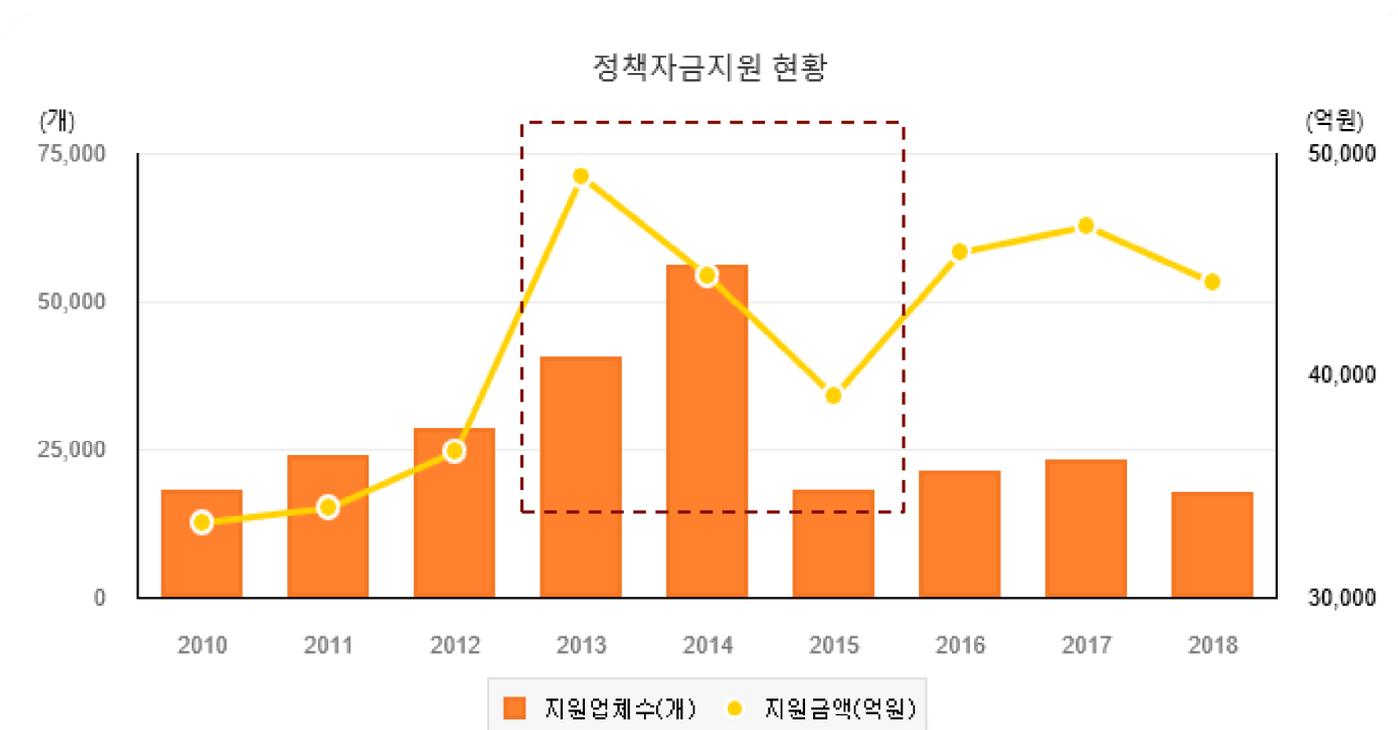
1. 공공 부문의 자금공급

지난 3년간 사회적경제에 대한 공공부문의 자금공급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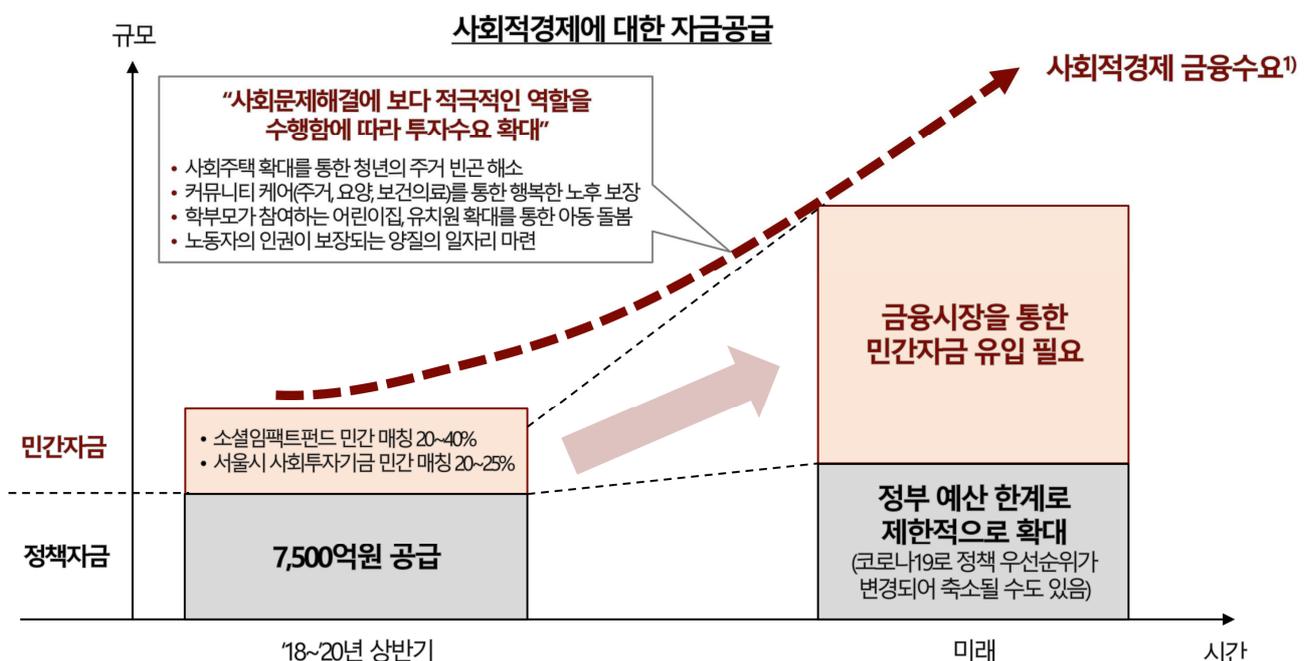
주 1) 한국사회혁신금융 내부 자료 2) 사회적금융협의회 자료(2018~2020년)

하지만 정책자금은 정책방향에 따라 매년 예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대되기 어렵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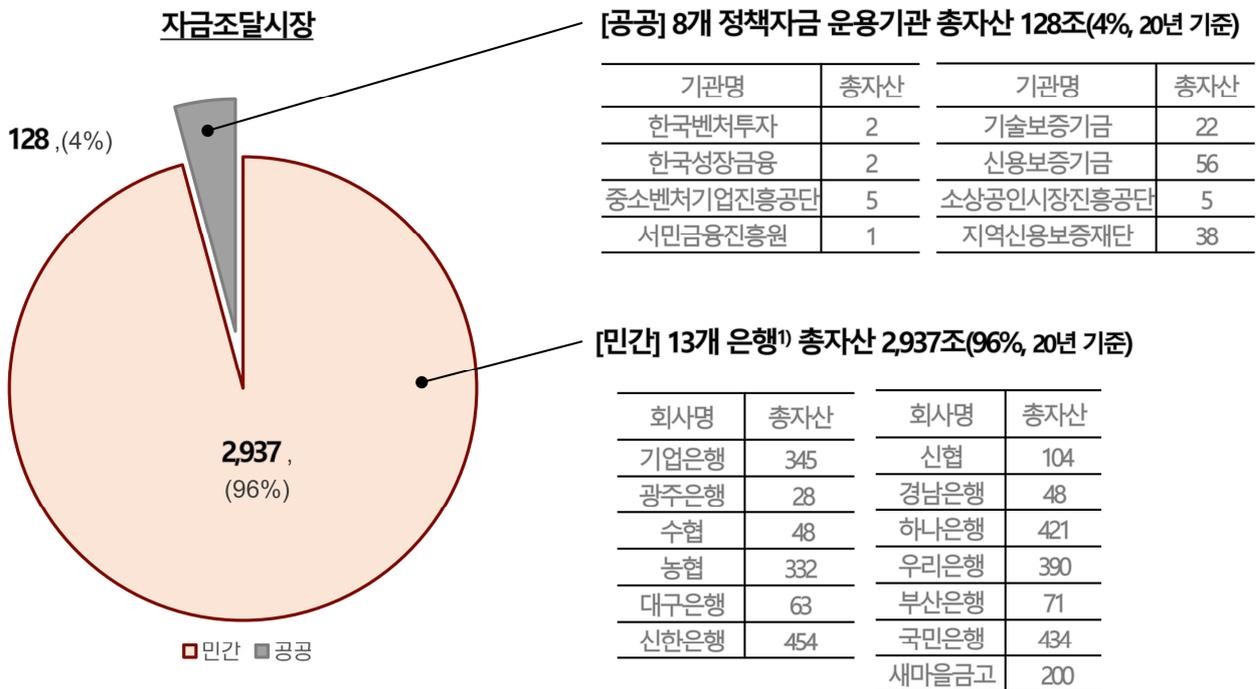
출처) 정책자금공급(중소벤처기업부), 신용보증잔액(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자료)

따라서 사회적경제의 늘어나는 금융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민간으로부터 자금공급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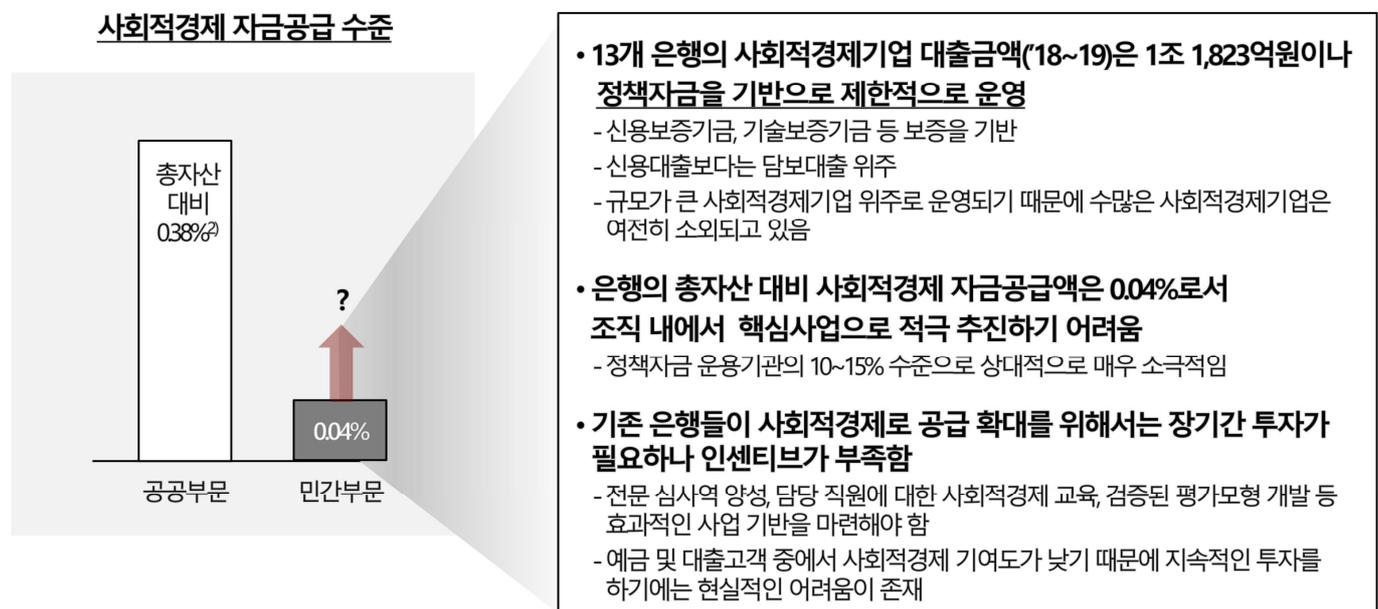


주 1) 국내 사회적경제기업 고용 비중은 14%로 EU 평균의 65%의 22% 수준이며, 사회적가치 또는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됨에 따라 EU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스웨덴,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프랑스는 전체 노동인구 중 사회적경제에 노동인구 비율이 9%를 상회함(15)

민간 금융시장을 통한 조달 가능한 자금 규모는 공공 정책자금보다 훨씬 큼니다.



하지만 기존 은행들에게 사회적 금융¹⁾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주 1) 본 보고서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 투융자 등을 통해 사회적가치 실현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금융으로 정의
2) 8개 정책자금 운용기관의 사회적경제 자금공급액('18~'19년) 4948억원 / 20년 총자산 128조 7613억원

신용협동조합은 소수의 단위 신협을 제외하고는 시중은행보다 더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 **신협의 총자산 대비 사회적경제기업 대출액 비중은 13개 은행 중 12위 수준**
 - 총자산 대비 사회적경제 대출액 비중은 0.015%로 기업은행 대비 15% 수준 (뒷장 참고)
- **단위 신협별 사회적경제 전담 인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대출 비중 확대나 신상품을 개발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 888개 조합 중, 지역신협 666개, 직장신협 136개, 단체신협 86개¹⁾
 - 사회적경제에 적극적으로 대출하는 지역신협은 **10~20개** 미만
 - 지역신협은 조합원인 지역 주민을 위해 자금을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조직에 마냥 우호적일 수 없음

사회적경제 종사자 인터뷰²⁾

“사회적경제에 이해가 높은
신협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사회의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하는 것에 소극적이었다.”



지역A 협의회

“기존 대출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기 보다는
실적을 쌓기 위해 신규 대출을
늘리려고 한다.”



지역B 중간조직담당자

“거점 신협과 사회적경제를
위해 여러 차례 협력을
제안했으나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거절하기 일쑤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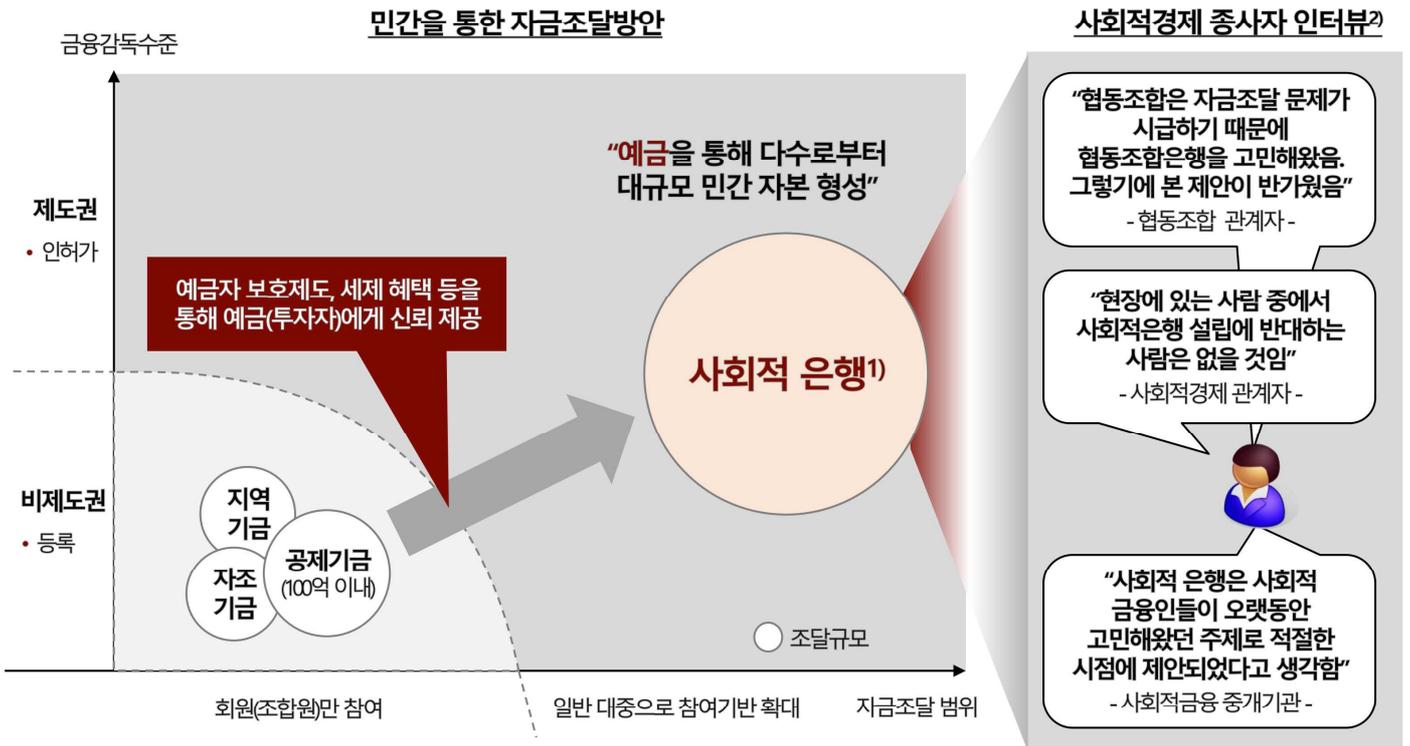
지역C 협의회

주 1) 2018년 기준신협통계 2018
 2)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회원단체(32명, 930 기준) 인터뷰 내용

[참고] 민간 은행별 총자산 및 사회적경제 대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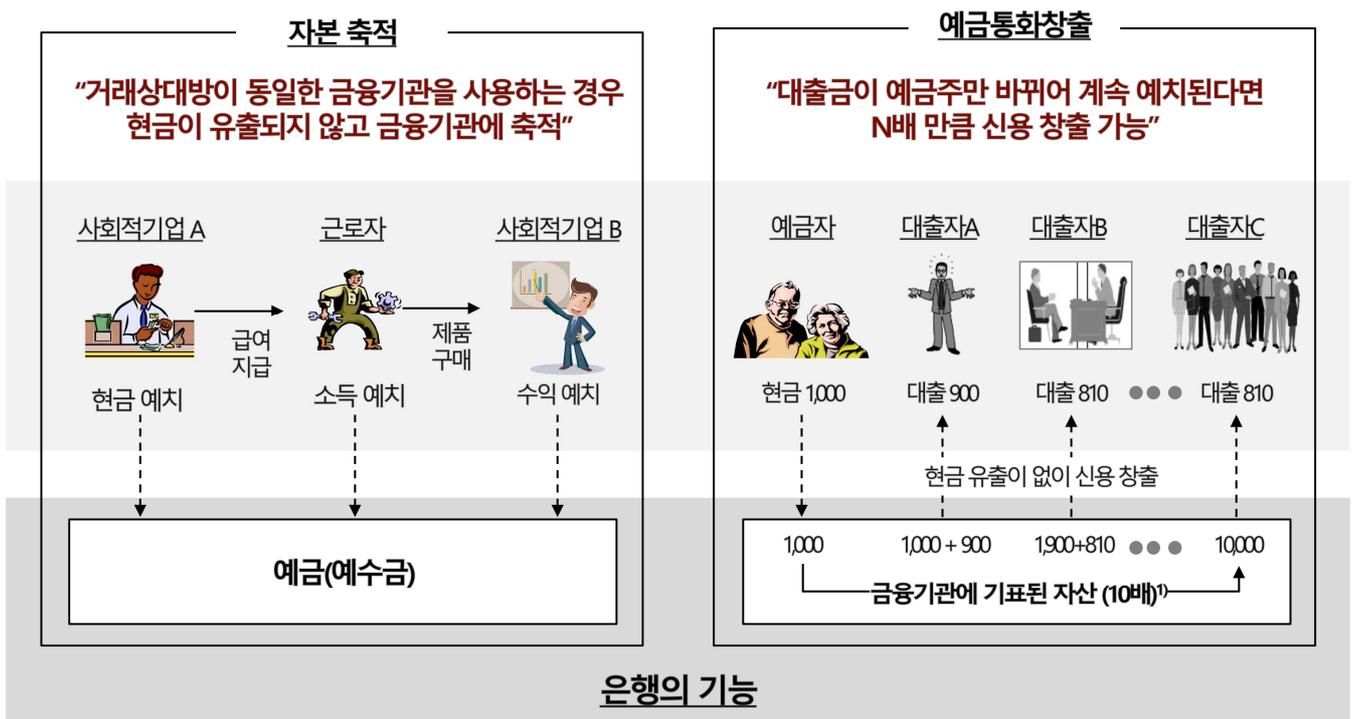
No	회사명	사회적경제 관심도(B/A)	총자산(억원, A)	사회적경제 자금공급(억원)		
				전체(B)	18년	19년
1	기업은행	0.097%	3,445,583	3,341	881	2,460
2	광주은행	0.081%	275,953	225	141	83
3	수협	0.057%	476,270	273	13	259
4	농협	0.053%	3,322,059	1,765	355	1,409
5	대구은행	0.051%	632,222	321	52	268
6	신한은행	0.049%	4,537,392	2,204	573	1,631
7	경남은행	0.031%	483,274	152	34	117
8	하나은행	0.030%	4,213,392	1,270	892	378
9	우리은행	0.025%	3,900,502	977	141	836
10	부산은행	0.024%	705,914	171	64	108
11	국민은행	0.022%	4,341,909	938	164	775
12	신협	0.015%	1,040,000	156		156
13	새마을금고	0.002%	2,000,000	30		30

우리 사회에도 사회적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사회적 가치를 확대해 나가는 사회적 은행이 필요합니다.



주 1) 본 보고서에서는 사회적경제조직, 종사자 및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주로 예금을 받고, 사회적 경제 등 사회적가치가 우수한 분야에 중점적으로 융자하는 은행이라고 정의
 주 2)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회원단체(22명, 930 기준) 인터뷰 내용

예금을 취급할 수 있다면 사회적경제 내 자본 축적이 용이하고, 자금 공급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며...



주 1) 고객 계좌의 저축한 금액이 금융기관에 그대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만큼 시장으로 돈이 풀리게 되는 것을 예금통화를 창출한다고 표현하며 본 예시에서는 90%만 대출재원으로 활용한다고 가정(자금준비율 10%)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경제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 1

사회적경제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시장 조성자 역할

 - 진정성있는 사회적경제조직을 발굴 및 심사하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역할 수행
 - ※ 등록제 도입을 통한 외연 확대로 지역사회에서는 건강하지 못한 기업들이 사회적경제로 유입되는 것에 우려가 큼
 - 상생, 호혜, 연대의 정신에 입각하여 사회적경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동반자의 역할 수행
- 2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민간 자본 축적 가속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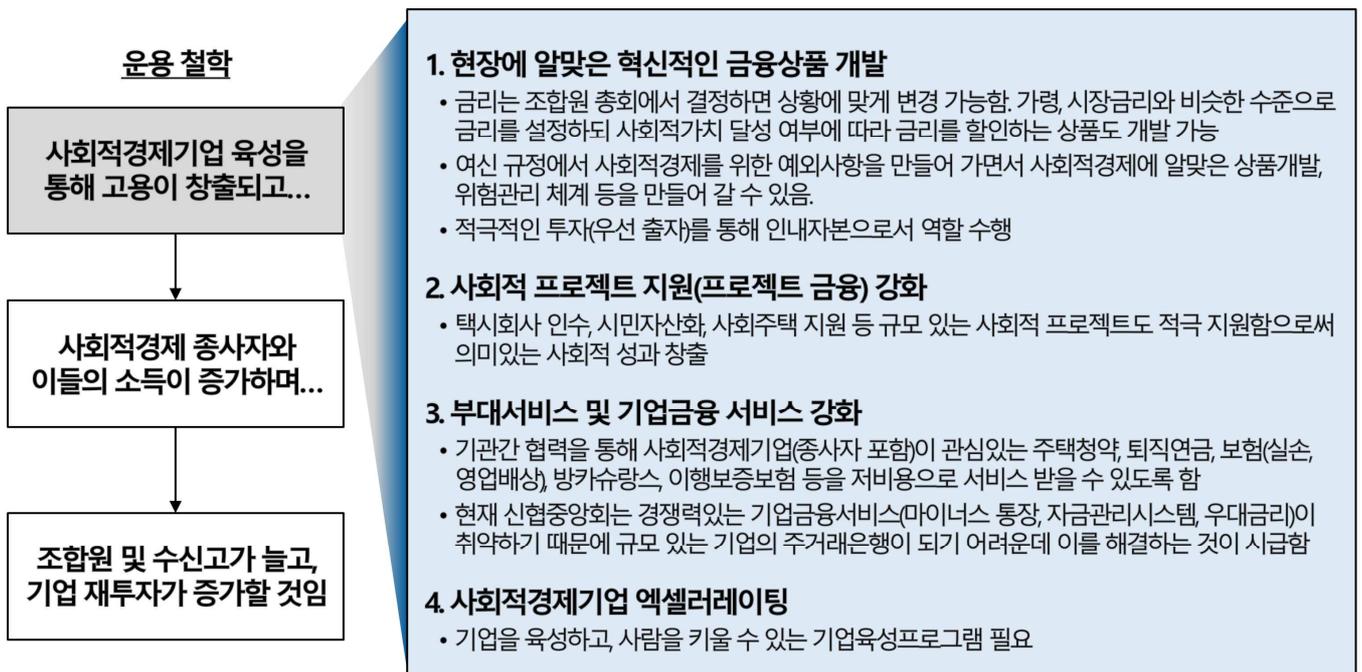
 - 중앙자활기금, 지자체 사회적경제기금 등 사회적경제관련 기금의 계좌 유지
 - 정부 및 지자체 사회적경제 예산 중 일부 계좌 유지
 - 공공상생협력기금, 우분투자재단 등 노조에서 만든 기금의 계좌 유지
 - ※ **기금 위탁이 아닌 계좌 유지만으로도 자산 및 수익기반 확대 가능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사회적금융 중개기관과 차별점)**
- 3

사회적경제를 넘어 사회적 가치 추구를 통해 대중의 참여 기반 확대

 - 사회적경제만을 위한 은행이 아니라 사회적가치를 지향하면서 다수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은행이 되어야 함
 - ※ 수신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적경제에 국한하는 것은 한계가 명확할 수 있음
 - 플랫폼노동자, 택시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지원하고, 사회혁신 활성화를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함

출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회원단체(32명, 930 기준) 인터뷰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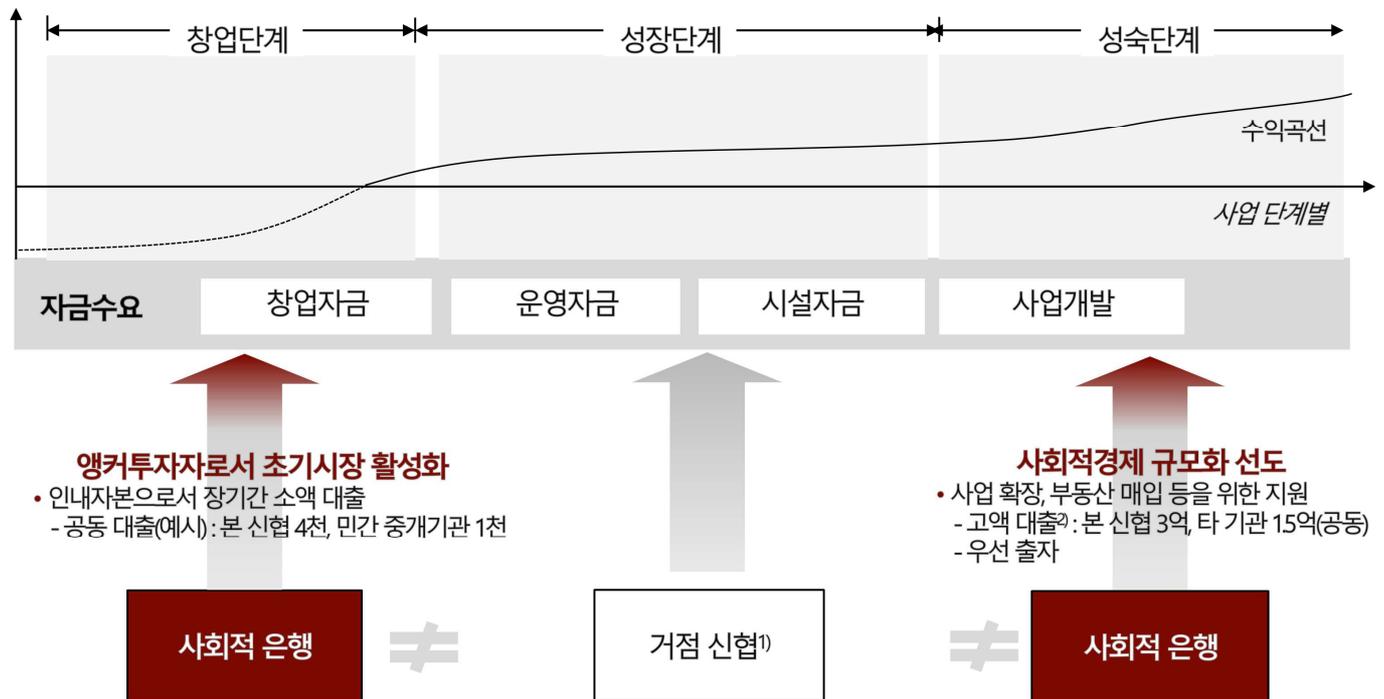
단기적으로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투자은행¹⁾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주 1) 은행의 역할을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으로 구분하는데, 전자는 기업금융에 집중하고, 후자는 개인을 상대로 하는 소매금융에 집중함. 개인 대출에 집중하고 있는 기존 단위 신탁과 달리 기업금융에 보다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표현임

초기 기업에게는 앵커투자자로서 인내자본을 제공하고, 규모있는 기업에게는 성장기반을 강화하는 프로젝트 자금을 제공합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성장단계별 자금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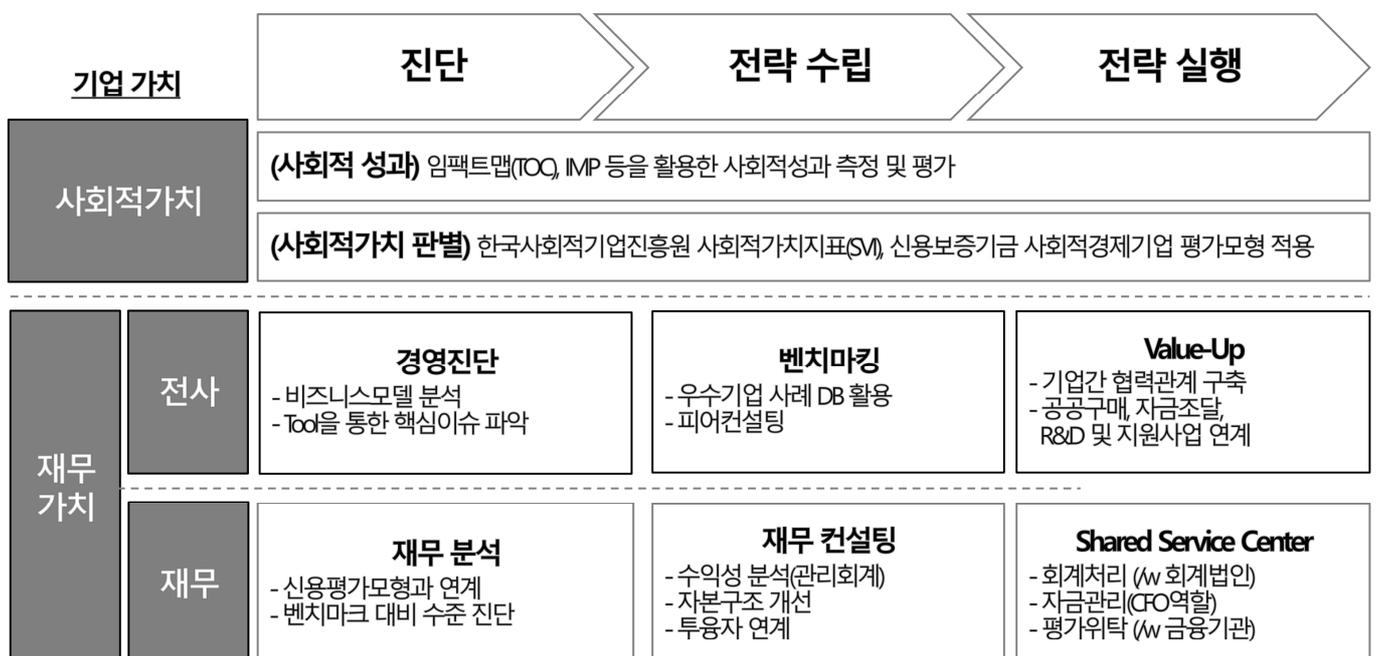


주 1) 동자신탁, 주민신탁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지역 신탁과 시범적으로 상생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신탁 대출한도 기준은 자기자본의 20% 자산총액의 1% 중에서 큰 금액으로, 가령 자산이 1,000억, 자기자본 80억원이면 최대 16억까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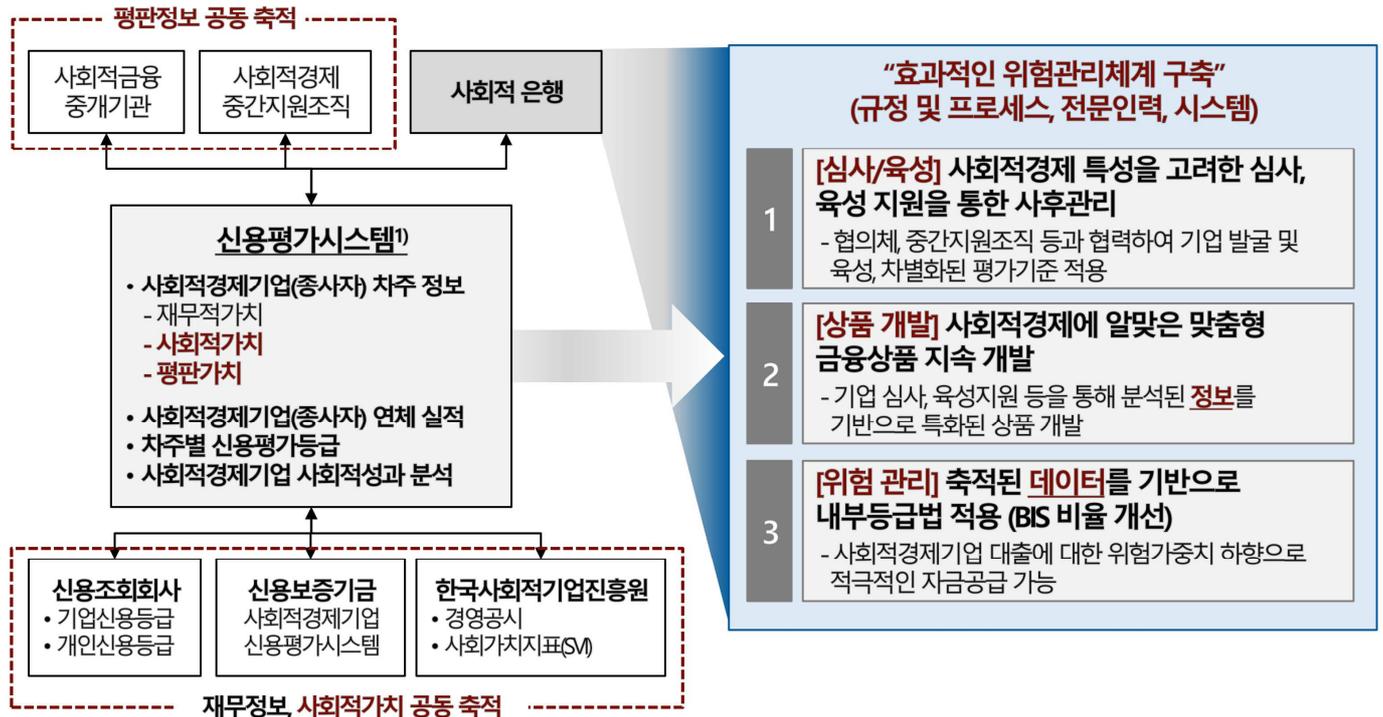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위험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예시적

기업육성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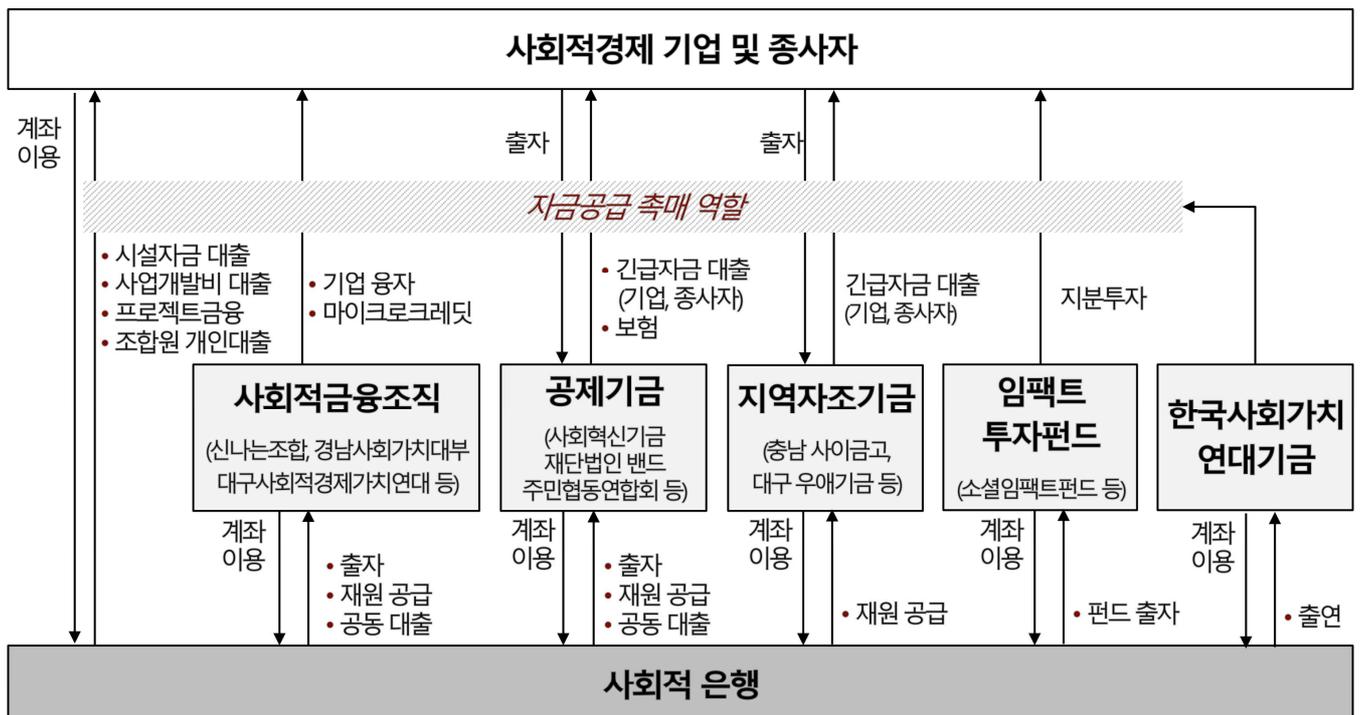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시장으로서 가능성을 입증하고, 금융기관들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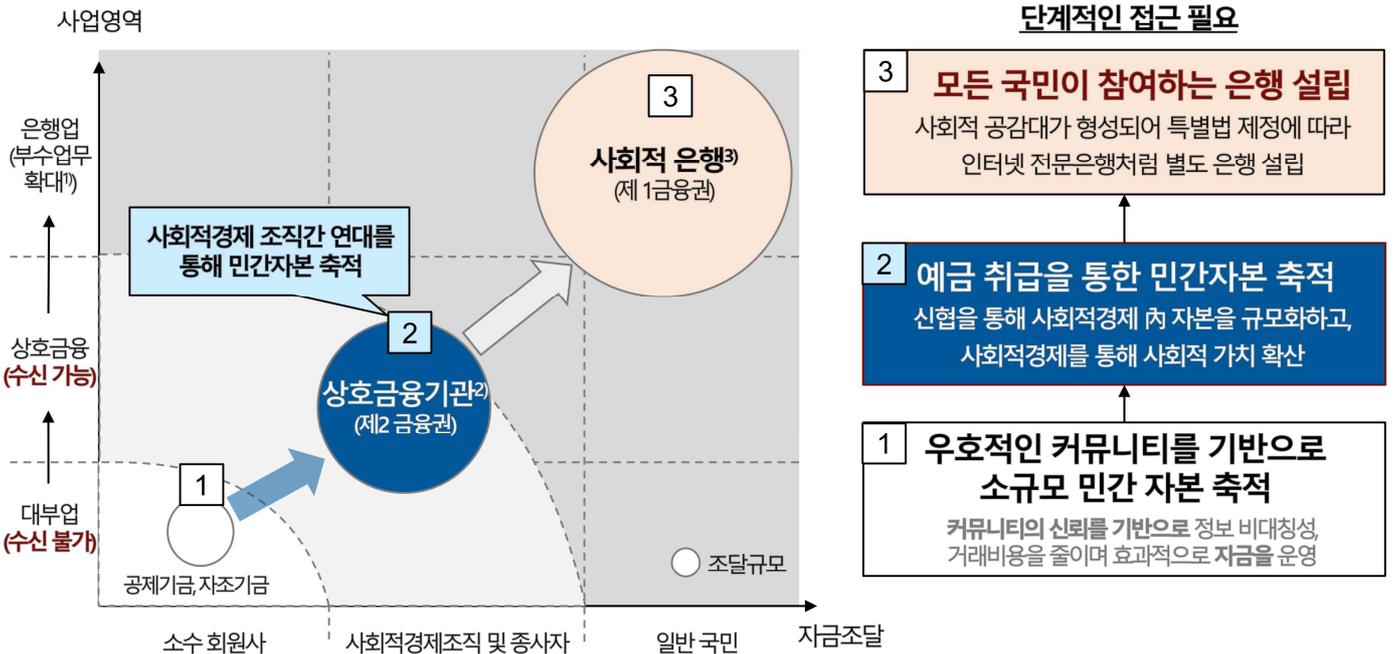


26

사회적 은행은 사회적금융의 리더로서 기존 사회적금융 중개기관과 연대를 통해 시장을 확대해 나갑니다.



예금을 통해 자본을 축적하고, 현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은행을 스스로 만들 수는 없을까요?



단계적인 접근 필요

- 3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은행 설립**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특별법 제정에 따라 인터넷 전문은행처럼 별도 은행 설립
- 2 **예금 취급을 통한 민간자본 축적**
신협을 통해 사회적경제 내 자본을 규모화하고, 사회적경제를 통해 사회적 가치 확산
- 1 **우호적인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소규모 민간 자본 축적**
커뮤니티의 신뢰를 기반으로 정보 비대칭성, 거래비용을 줄이며 효과적으로 자금을 운영

주 1) 신탁 카드, 방카슈랑스, 펀드판매, 외환 등 부수업무를 통한 비이자 수익 확대 가능
 2) 아이쿱 생협에서 10년 전에 새마을금고 설립을 하고자 했으나 정치적인 이유로 무산되었음. 현재는 과거와 달리 정치, 경제, 사회적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관계자 및 전문가 인터뷰 중에서), 또한 저축은행 인수, 해외 사회적 은행의 합작법인 설립 등을 추진했으나 검토 수준에서 끝나고 실무적인 협상까지 진행한 적은 없음
 3) 특별법 제정을 통한 사회적 은행 설립 논의가 꾸준히 있어 왔으나,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공제조합 설립에도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했을 때 법 제정을 통한 사회적 은행 설립은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됨

사회적경제조직간 연대를 통해 예금을 취급하는 단체신협 설립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은행의 비전을 그려나가기야 합니다.

예시적

예금취급기관	가치 부합성	주요 고객군	설립 용이성 ¹⁾
신용협동조합	경제적 약자들이 상호부조에 입각하여 스스로 해결하고자 자발적으로 조직한 비영리 금융협동조합	• 사회적경제조직, 종사자 및 그의 가족 등이 모두 포함된 단체신협 설립 가능	• 단체 신협 1억원 • 지역 신협 3억원
저축은행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위해 만든 주식회사	• 개인은 4~6등급 위주 •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	• 특별시 120억원 • 광역시 80억원 • 기타 40억원
인터넷 전문은행 (제1금융권)	• 온라인으로 은행서비스 제공 (비대면 거래 의무화, 지점이 없음)	• 중금리 신용대출(직장인 등) • 기업 상품 취급 제한	• 250억원
은행 (제1금융권)	예금자를 보호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	• 개인은 1~3등급 위주 • 대기업, 중견기업 위주 대출	• 시중은행 1,000억원 • 지방은행 250억원

주 1) 설립자본금 기준

감사합니다.

(04793)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12길 20, 606호, 607호(성수동2가, 성동안심상가)

E-mail info@ksifinance.com

Website <http://www.ksifinance.com>

Facebook <http://www.facebook.com/ksifinance16>

Copyright © 2020 by 한국사회혁신금융㈜

본 리포트는 한국사회혁신금융㈜으로부터 사전에 서면 동의를 받지 않고 회람, 인용, 배포를 위한 수정을 할 수 없습니다.

발제문

2. 자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안

김선영 사무국장
<재단법인 밴드>

자조기금 활성화를 위한 제안

(2020. 10)



재단법인 밴드 (BAND FOUNDATION)

사회적금융

- ▶ 사회적경제 조직 및 사회적가치 프로젝트 투융자
- ▶ 지자체 및 공공기관 사회적경제 기금 수행기관
 -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운영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생활 지원사업 운영기관
- ▶ 사회적경제 연대·협력 도모 공제/자조기금 조성·운영
 - 약 140억 규모 기금
 - 대구 사회적경제 사회적가치연대기금
 - 대구 동구 사회적경제협의회 우애기금
 - 화성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자조기금
 - 울산 사회적경제공동체 자조기금
 - 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 자조기금
- ▶ 소액대출 사업
 - 사회적경제 종사자 소액대출
 - 미혼모&한부모 지원 소액대출 사업
 - 한국도시가스공사, 대구 소상공인 경영안정 대출지원

창업육성 성장지원

- ▶ 사회적경제 창업보육센터(공간) 운영
 - 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경제성장지원센터 운영(연 50팀)
 - 서대문구, 사회적경제마을센터 창업보육 공간(연 30팀)
- ▶ 창업육성/엑셀러레이팅/컨설팅·코칭(누적 152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운영
 - 한국수출입은행신사회구성원지립사회적경제지원사업운영
 - 한국수력원자력, '소셜벤처 엑셀러레이팅 지원사업' 운영
 - LH-서대문구, '청년매장창업 컨설팅' 사업 운영
 - 한국수자원공사,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지원사업' 운영
 - 강원랜드, '사회적가치혁신프로젝트' 운영

사회적경제 연대공제기금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스스로 기금을 만들어 서로 돕는 자조 금융입니다.

공제기금의 기능

사회적경제 손실방지기능	사회적기업의 부도 방지 및 국가 경제적 손실 예방
사회보장적 기능	다수의 취약계층 종사자의 일터인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고용 안정화 및 긴급 생계 안정 등 사회보장 기능수행
사회적기업 자조 실현	공제부금 납부라는 자조적 노력으로 재원을 조성함으로써 외부 지원에 의존하는 도덕적 해이 방지
영세 사회적기업 자금지원	신용력 및 담보취약으로 기존 제도금융권에서 소외된 영세 사회적기업을 지원하여 국가경제 허부기능 수행

공제기금의 목적

상호부조정신 고양

- 사회적기업 및 종사자 스스로 납부한 부금을 재원으로 조성에 사용함으로써 상호부조의 정신을 이어나감

경영안정 도모

- 긴급 경영자금 및 상해 보상 자금 등의 필요 시 적립된 재원을 지원하여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도움

정책기반 마련

- 사회적기업 공제기금 성과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을 이끌어냄으로써 지원 정책의 실효성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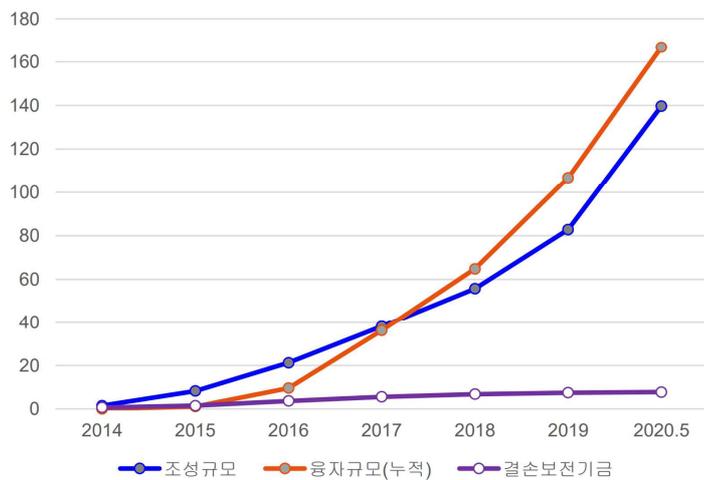


II. 사회적경제 자조기금

사회적경제연대공제기금

사회적경제공제기금은 현장과 함께 꾸준히 성장해왔습니다.

(단위: 억원)



조성규모

2014년	15억
2015년	83억
2016년	213억
2017년	382억
2018년	486억
2019년	854억
2020년5월	1397억

가입기업수

2014년	35개
2015년	105개
2016년	111개
2017년	195개
2018년	203개
2019년	227개
2020년05	237개

용자규모(누적)

2014년	0원
2015년	1.1억
2016년	9.6억
2017년	36.3억
2018년	64.8억
2019년	97.6억
2020년5월	1668억

결손보전기금(누적)

2014년	06원
2015년	1.1억
2016년	3.1억
2017년	6.2억
2018년	6.8억
2019년	7.6억
2020년5월	76억

공제기금 조성 현황 및 전망

(단위: 억원)

	합계	회원부금	기부금	정책자금
'20년 05월	139.7	42.2	6.6	90.9

공제기금 대출 현황

(단위: 억원)

건수	총대출	총상환	잔액	연체율	결손율
479건	166.8	80	86.8	3.9%	0



사회적경제공제기금에 가입한 회원사에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가입대상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 소셜벤처, 중간지원기관, 협의체(지역/부문/업종 네트워크) 등
부금납입	10만원 ~100만원 (10만원 단위)
부금 만기	36개월, 48개월, 60개월 (60개월 이상 연장 가능)
가입기업 현황 (2020.09)	가입기업 수: 251개 1개 기업 평균 월부금액: 월 58만원
가입방법	'밴드'홈페이지(sefund.or.kr) → 온라인 회원가입 버튼 눌러 ID와 비밀번호 생성 후 → 공제회원가입 버튼 눌러 공제기금 가입 신청 작성, 제출



4

기본 상품은 대출신청 시점에 납입한 부금 총액의 3배까지 신용대출, 5배까지는 담보대출 한도 상품입니다.

구분	부금내 대출	신용 대출	담보대출
대상	공제기금 가입 만 3개월 경과한 기업		
대출한도	납입한 부금 이내	납입한 부금의 최대 3배까지 ※ 단, 2천만 원 이내 범위에서 10배 대출 가능 (예시: 현재까지 납입한 부금 누적액 200만원 * 10배 = 2,000만원)	납입 부금의 최대 5배까지
이자율	연 2%	연 2% ~ 3.75% (납입 부금 규모/기간, 담보가치 평가, 대출기간 등에 따라)	
상환기간	최대 6년		
진행절차	무심사 3일 이내 대출	심사 프로세스에 따라 최대 15일(영업일 기준) 이내 비대면심사를 우선하며 필요에 따라 현장실사, 대면심사 진행	
기타		추천서 2부 (공제 가입 회사사 또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추천서)	부동산 이외 담보 가능 (예) 임대보증금, 차량 등
신청접수	온라인 수시 접수 (접수처: sefund.or.kr 로그인 후 '대출보험신청하기') 문의: 070-5099-1672		

※대출 신청은 기금 가입 후 매월 부금을 납입하고 4회차 이상 부금을 납입한 가입자에 한해 가능
 ※납입 부금 금액을 초과하는 대출금에 대해 05%의 공제안정화기금 일시 납부
 (대손보전 용도로 별도 적립하며,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함)



5

2019년부터는 3억 초과외 대출 상품도 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상품	우수 사회적경제(서울)	소셜프로젝트	협업체(네트워크)
대상	우수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경제 기업	2개 이상 사회적경제 조직이 협력하여 지역/부문의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는 프로젝트 추진 사회적경제 조직	지역/업종/부문 등 네트워크
용도 및 한도	최대 5억 (신용 최대 1억)	최대 10억 (시민자산화 등 사회적 프로젝트 추진 자금)	목돈으로 부금 일시납 가능 기본상품(부금의 5배 대출한도) 및 용도성 여신 상품 이용 가능
	○ 시설자금: 총 소요자금 80%이내 ○ 운전자금: 매출액의 50% 이내 (최대 1억) 부금납입 규모, 담보가치 등 심사평가에 따라 승인 금액 조정		
이자율	연 20% ~ 3.75% (납입 부금 규모/기간, 대출기간, 대출재원, 신용/담보 등 심사 평가에 따라 상이)		
상환기간	5년 (연장하여 최대 10년, 매년 평가)		상품에 따라 상이
처리기한	공제기금 심사 프로세스에 따라 최대 15일(영업일 기준) 이내 비대면심사를 우선하며 필요에 따라 현장실사, 대면심사 진행		
기타	예산 소진 시까지	프로젝트 참여하는 다수 기업의 공동 신청 가능. 예산 소진시까지	법인격 필수
신청접수	온라인 수시 접수 (접수처: sefundotkr 로그인 후 '대출보험신청하기') 문의: 070-5099-1672		

※ 납입 부금 금액을 초과하는 대출금에 대해 05%의 공제안정화기금 일시 납부 (대손보전 용도로 별도 적립하며,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함)



6

사회적경제 종사자를 위한 근로복지 성격의 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종사자 소액대출

구분	생계비	고리이자 대환대출
대상	공제기금 회원 가입 기업 1년 이상 근속 종사자(대표자 포함)	
대출한도	500만원 ※ 생계비 증빙 필요: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출산과 양육비, 요양비, 관혼상제 등	1,000만원
연이자율	15%	3.5%
상환기간	최대 36개월 (균등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함)	
신청접수	상시 전화 상담 및 상시 온라인 접수 매월 25일 경 심사(월1회) 매월 말일경 대출금 입금	
심사기준	경제적 취약성, 긴급성, 상환의지 및 가능성, 소속기업 재무건전성, 대표자 추천 등	
신청접수	수시 접수 (접수처: 재단법인 밴드 홈페이지 sefundotkr 문의: 070-5099-1672)	

(2) 상조(장례) 서비스

※ 서비스 준비 중

(3) 단체보험(상해)

※ 서비스 준비 중



7

밴드는 지역/부문/업종 자조기금 조성·운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금명칭	대구 동구 우애기금	울산 사회적경제 자조기금	화성 사회적경제 자조기금	노협기금
가입대상	대구동구 소재 사회적경제조직	경북 울산 소재 사회적경제조직	경기도 화성에소재 사회적경제 조직	일하는사람들의협동조합연합회 소속 회원사(조합원)
기금주체	대구동구 사회적경제협의회	울산사회적경제연대회의	화성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일하는사람들의협동조합연합회
기금관리	재단법인 밴드			
기금매칭	사회적경제공제기금에서 각 지역기금의 조성 초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대출자금 2~3억 매칭. 향후 지역기금의 부금 규모가 커짐에 따라 매칭 규모 확대 등 조정해 나감			노협 회원사의 부금 납입규모를 보장하는 기능(대출한도향상효과)
부금납입	5만원 ~100만원 (5만원 단위)			일시 납부 1천3백만원
부금만기	36개월, 48개월, 60개월			-
대출자격	부금을 5회 차 이상 납입한 때 (부금 연체가 없어야 함)			밴드 공제기금 가입한 노협 회원사
대출한도	납입부금의 10배 최대 2천만 원 신용대출: 납입 부금의 3배까지 담보대출: 납입 부금의 3~10배	납입부금의 10배 최대 1천만 원 신용대출: 납입 부금의 3배까지 담보대출: 납입 부금의 3~10배	신용대출: 납입 부금의 3배 담보대출: 납입 부금의 5배 (2천만원 이내 범위에서는 10배)	
이자율	납입 부금 범위 이내: 2%, 납입 부금 초과 금액: 3.75% 0.5%의 공제안정화기금 납부 (1회만 납부, 기부금영수증 발급) 이자수입은 밴드가 수취 (기금 관리 수수료가 별도로 없어 이자로 수취)			
심사주체&결손부담	대구동구 사회적경제협의회	울산사회적경제연대회의	재단법인 밴드 (화성사경넷 추천 1-2인 참여)	재단법인 밴드



8

밴드는 지역/부문/업종 자조기금 조성·운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화성사회적경제네트워크 - 재단법인 밴드 협약



2019년 12월 대구동구사회적경제협의회 - 재단법인 밴드 협약



2019년 12월, 일하는사람들의협동조합연합회 - 재단법인 밴드 협약



2020년 5월, 울산사회적경제연대회의(준) - 재단법인 밴드 협약



9

지역/부문/업종 기금의 조성규모와 그 구성을 가늠해봅니다.

1년차

총 25~5억 조성

- 회원사 월부금을 기반으로 조성
- 회원사 월부금 5천만 원
(50개사 x 1년 차 연 평균 100만원 납입)
- 사회공헌기금 1억 원
- 지자체 등 정책자금 조달 1.5억 원
- **밴드의 기금 매칭 (협의)**

※ 재단법인 밴드 매칭 규모는 지역 기금의 회원사들이 납부하는 월부금액이 2년 후 예상(목표)되는 규모 만큼을 매칭함 (매칭 규모는 밴드와 별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정책자금 매칭	1.5억
사회공헌기금	1억
가입기업 월부금	0.5억
재단법인 밴드 기금 매칭	3억

5년 후

누적 총 25억

- 회원사 월부금 12억 원
(50개사 X 월 평균 40만원 X 60개월)
- 사회공헌기금 3억 원
- 정책자금 매칭 10억 원

※ 재단법인 밴드 매칭 금액은 회원사 월부금 누적 금액에 따라 회원사 월부금으로 상계해 나감

정책자금 매칭	10억
사회공헌기금	3억
가입기업 월부금	12억



역할과 기능들은 다음과 같이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기금 조성의 주체 (기금의 거버넌스)

- ✓ 기금의 거버넌스 구성
- ✓ 기금 운영 규정 제.개정
- ✓ 대출심의위원회, 재무위원회 등 부속 기구 구성

재단법인 밴드 (기금관리운영실무)

- ✓ 하단의 기금운용 실무 운영
- ✓ 기금의 현황분석 및 보고
- ✓ 기금 거버넌스 및 심의위원회 등 부속 기구 운영 지원
- ✓ 지역 니즈에 따른 신규상품개발 및 사회적프로젝트 기획
- ✓ 지자체 기금, 사회공헌 기금 등 자금조달 기획 및 실행
- ✓ 기존 공제기금 운영 경험 공유

기금운용업무

회원 관리

- 조합원 관리
 - 회원가입 및 변경, 해지
 - 납입 부금 현황, 대출 이율 현황 등 정보제공
- 기부/지자체 기금
 - 기부 제안서 작성, 미팅
 - 정책자금 조달 제안

대출 거래

- 대출심사, 집행
 - 용자문의안내, 접수
 - 용자심사, 약정, 대출 실행
- 대출 거래 관리
 - 거래원장 관리, 상환스케줄 관리
 - 연체관리, 조건 변경 등

위험 관리

- 유동성위험 관리
 - 자금별/일자별 현금흐름
 - 현금흐름 시뮬레이션
- 신용위험 관리
 - 기금 부실률 관리
 -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관리

기획/조정

- 정기보고
 - 기금 현황 정기적 공유
 - 기금 운영 방향 제시 및 논의
 - 자금 조달, 용자상품 기획 등 협의
- 금융상품 관리
 - 상품 설정(한도, 기간, 이율 등)
 - 규정 및 필요서류 관리

- 향후 기금 규모 성장 등 운영 효율화 타당한 시점에 기금 조성 주체가 직접 운영도 가능



자조기금 조성·운영 시 검토 사항 (1/2)

■ 기금 역할 및 포지셔닝

- 조성하는 **기금의 주요 목적과 역할(주요기능)**을 논의, 결정
- **내외부 환경 변화 검토**: 사회적금융의 생태계 등 외부 환경 분석을 통해 지역의 자조 기금 필요 이유와 방향성을 잘 설정할 필요가 있음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다른 금융 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초기 마중물(자부담) 기능 등)

■ 기금 조성의 주체: 해당 기금 조성 단위

- 조성되는 기금의 주체(책임지는 주체)가 어느 기관/단위인지 확정

■ 정관 등 기금 운영의 근거 및 운영 규정 마련

-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특별법, 비영리법인 정관 등)
- 기금의 목적, 가입 자격, 조성, 기금 운영의 원칙, 의사결정 단위와 방식, 결손 처리 등 기금운용의 주요 골자 기재
- 세부사항은 세칙, 지침, 매뉴얼 등을 마련

(참고) - 밴드와 협력하는 기관들은 직접 기금을 운영하지 않기에, 운영규정 이하 밴드의 규정을 준용하고,
- 기금 운영 협력 협약서에 사회적경제공제기금과의 차이점(다른 부분)만 별도 표기. 규정의 변화 시 공지함
- 은행 등 '준법부서' 업무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영역임



12

자조기금 조성·운영 시 검토 사항 (2/2)

■ 기금운영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구성 및 역할

- 기금운영 주체 기관/단체 산하에 기금 운영 전반을 관리, 심의의결 기구로서 **기금운영위원회** 구성하여 운영
- 당사자에 대한 이해가 높고, 우호적이어야 하지만 또한 **중립적**이어야 함
=> 이후 기금의 중립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별도 법인으로의 독립을 고려할 필요 있음
- 필요 시, 기금운영위원회 산하에 심의위원회 및 모금위원회 등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음
- 구성 예시: 가입사 중 대표격/출자자(기부자)/향후 기금조성 기여 가능성 높은 기관 / 전문가(변호사, 회계사, 교수 등) 등

■ 기금의 조성

- 지역 기금 가입기업이 납부하는 부금
- 지역 기금 활성화를 위한 정부, 기업 및 그 밖의 자의 기부금, 지원금, 보조금
- 지역 기금 사업을 위한 차입금
- 재단법인 밴드와의 협약에 의해 사회적경제공제기금에서 지역 기금에 매칭한 자금 등

■ 기금 안정화 기금 및 기금 결손의 부담

- 기금 대출 시 부금 초과금액의 05%는 기금의 **안정화 기금으로 별도 적립**
- 기금 결손 시, 안정화 기금 => 기부금, 지원금, 보조금 => 기금 가입기업의 부금의 순서로 결손을 보전하는 목적으로 사용

■ 기금관리: 시스템과 인력, 관리비용

- 자체 구축 운영 시 비용 상당함. 밴드와 협력 시 일정 수수료 또는 이자수입을 밴드가 수취하는 등의 방식으로 운영

■ 기금의 법인격

- 규모가 작은 초기에는 기존의 당사자 협의체(당사자 네트워크) 법인 내에 기금으로써 법인격의 회계와 구분 운영
- 향후 기금의 규모가 커지고 발전방향에 따라 법인격이 필요할 경우, 추후에 별도 법인격을 만들 수 있음



13



발제문

3. 지역화폐의 의미와 진화

김성훈 이사
<지역화폐협동조합>

지역화폐의 의미와 진화

지역화폐 협동조합 이사
지역품앗이 한발레츠 감사
대덕이로움 발행위원
온통대전 워킹그룹 위원
품앗이생협 이사장
김성훈

목차

- **대전의 민간지역화폐 운동 한발레츠 20년이 걸어온 길**
 - 한발레츠가 걸어온 길
 - 한발레츠가 지역화폐 운동에 주는 시사점
 - 한발레츠의 성과와 과제
- **지역화폐 협동조합과 한발페이 프로젝트**
 - 지역화폐 협동조합의 설립배경
 - 지역화폐 협동조합의 조직현황
 - 한발페이 시스템 개요
 - 4개 전략가맹 지역과 유형
- **대덕이로움과 한발페이 협력방안**
 - 대덕이로움과 한발페이 비교
 - 지방정부형 지역화폐의 과제
 - 대전형 지역화폐의 정의와 이해관계자 모형
 - 민관협력 실행방안과 역할분담
 - 대덕형 지역화폐 운영 시나리오

대전의 20년간의 지역화폐 실험

- 대전은 1999년부터 시작한 지역품앗이 한발레츠 이래 다양한 민간 지역화폐운동이 발전해온 곳임.
- 한발레츠는 한국의 지역화폐 관련분야 연구와 논문, 정책제안에 빠지지 않고 인용되고 있음.
- LETS(Lcal Exchange & Trading System) 뿐만 아니라 타임뱅크, 상품권 지역화폐 등 다양하며, 특정 마을과 지역단위의 지역화폐 실험도 지속되고 있음
- 2020년 9월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민간지역화폐의 연대와 협력을 도모하고자 지역화폐 협동조합을 창립함(이사장 박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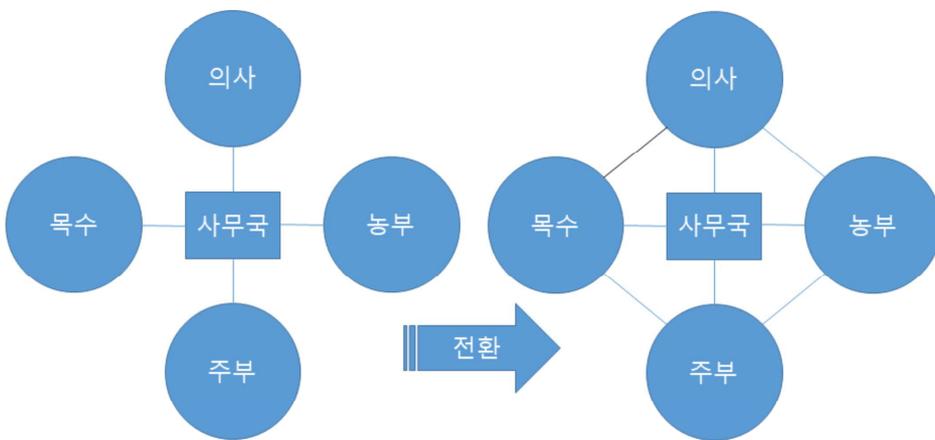
한발레츠가 걸어온 길

- 1999년 10월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에서 한발레츠 회원모집
- 2000년 2월 70여명의 회원으로 창립총회
- 2002년 3월 대전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2002년 8월 한발레츠 회원주도 민들레의료생협(현 의료사협) 창립
- 2003년 2월 지방의제 21 전국협의회 총회에서 우수사례 선정
- 2004년 4월 회원주도로 12년제 대안학교 꽃피는 학교 개교
- 2005년 5월 일본 "지역통화세미나 in EXPO 2005" 초청받아 사례발표
- 2005년 11월 5주년 기념 "세계공동체화폐 학술 심포지엄" 개최
- 2012년 4월 원도심레츠 창립/마을카페 좋은이웃(마을기업 선정)
- 2016년 3월 대전광역시 지정 제2016-1호 공유단체 지정
- 2019년 8월 대전광역시 공유공간조성사업

한밭레츠 TV방송 및 언론

- 2004년 9월 한국교육방송 30년, 공사창립 4주년 특집 행복이란 무엇인가?
- 제 4부 "인간의 얼굴을 한 돈의 세계" (한밭레츠 사례를 중심으로)
- 2005년 3월 KBS 제 3지대 "법동 사람들의 행복 만들기" 방영
- 2006년 2월 EBS 하나뿐인 지구 "환경을 살리는 위대한 돈 경쟁을 넘어 나눔으로" 방영
- 2009년 1월 그것이알고싶다 700회 특집 2부작 [돈 나라 사람 나라] 제 1부 - '돈 세상에서 살아남기'
- 기타 주요 일간지에 수차례 언론보도
- 녹색평론, 환경과 생명, 생협평론, 문화과학 등 계간지에 소개

한밭레츠가 지역화폐 운동에 주는 시사점



<주민의 자발적 호혜관계 조직화>
 주민관계 맺기->공동체 관계형성->두루거래촉진->공동체 관계 확장->민들레의료사협 등으로 모태역할->두루거래 증가

<지역사회 조직화>
 품앗이 만찬
 품앗이 장터
 품앗이 학교

<민주적 운영>
 총회-운영위원회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자립적 운영>
 회원의 월회비 1만원
 회원의 기부와 자원 봉사

한밭레츠의 성과와 과제

• <성과>

- 회원 약 700명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운영
- 연간 거래규모 3억원, 연간거래건수 1만~1만 5천건
-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꽃피는 학교 등 산파역할
- 20년간 유지되어온 민간지역화폐 운동의 대표모델로 자리매김

• <과제>

- 거래시스템 불편->한밭페이 어플에 레츠시스템 탑재(11월말 완료)
- 운영비 조달의 어려움->재원마련을 위한 프로젝트 준비
- 가맹점 확대의 한계->한밭페이 가맹점 활용

사회적경제 대전플랜의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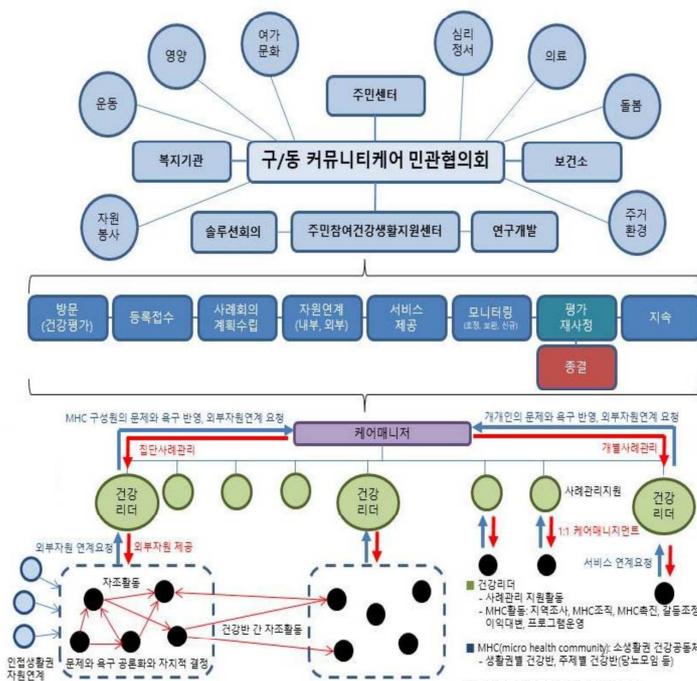


사회적경제 지역화 전략의 제기 배경



강원형 사회적경제육성모델발굴연구(2015), 김용문 외

로컬푸드와 지역화폐



- 건강자원 네트워크**
 - 미주분협동조합: 당사자 조직
 - 사회적경제연구원: 발굴, 컨설팅
 - 충남대 링크+사업단: 서비스 고도화
- 케어매니지먼트**
 - 컨트롤타워: 건강생활지원센터 (자원관리, 입퇴원 계획/관리 등)
 - 선임케어매니저: 입퇴원 계획/관리 (재가의료연계)
 - 케어매니저: 기존 사례관리역역 경력자대상 보수교육을 통해 커뮤니티케어에 맞는 케어매니지먼트 수행(각 기관)
- 주민참여: 건강자치력향상**
 - 지역관리기업
 - (가칭)마을돌봄협동조합: 주민건강 자치
 - 주민건강역량강화: 교육과정개발
 - 건강반: 만성질환관리
 - 건강리더: 돌봄 활동
 - 주민자치회 건강분과위원

로컬푸드와 지역화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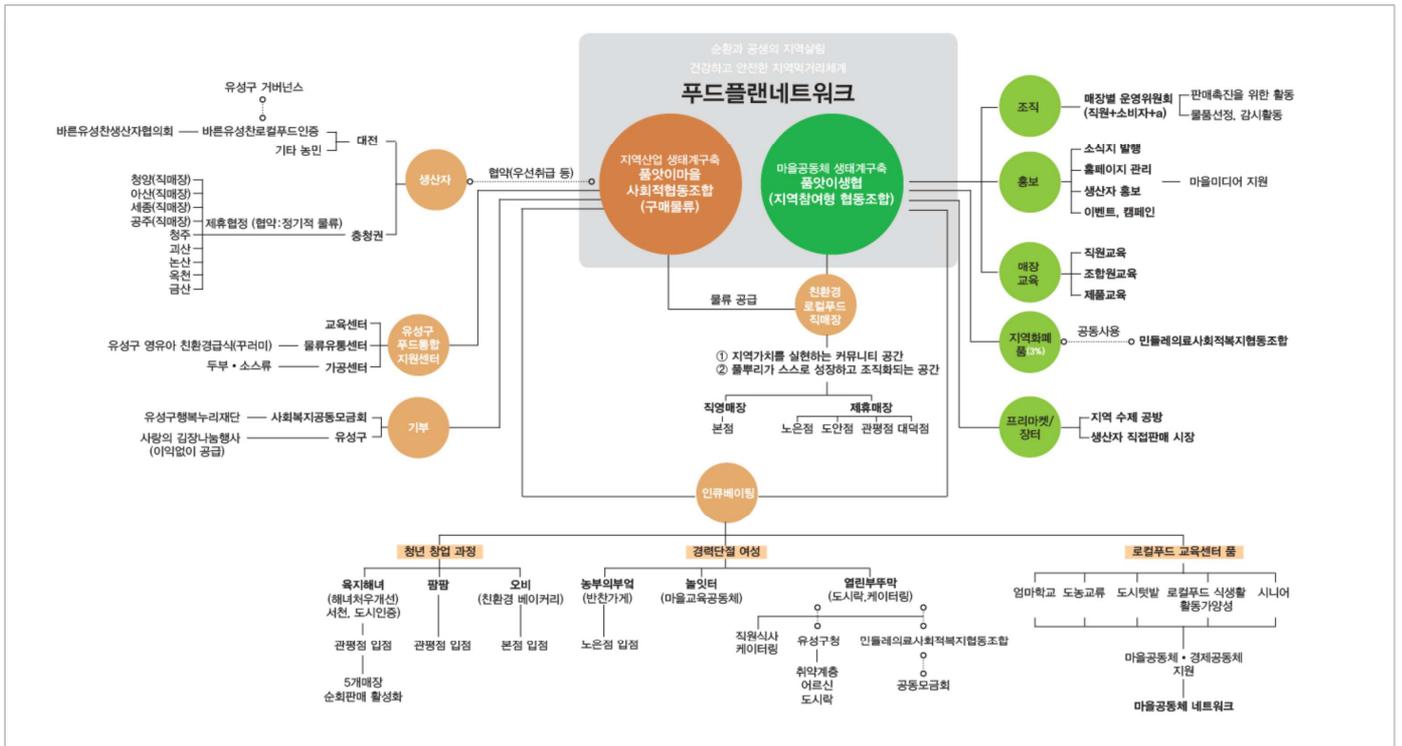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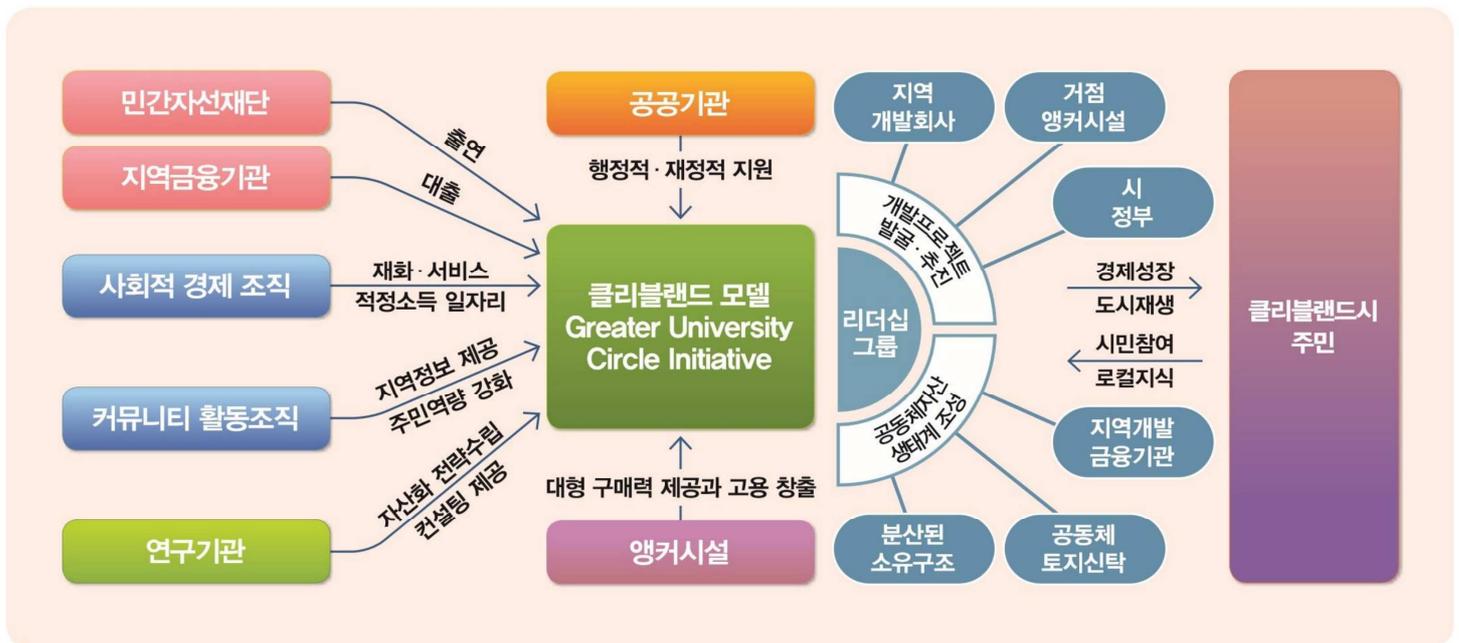


그림 클리블랜드 모델의 거버넌스 구조



출처: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을 위한 지역 자산 공유방안(국토연구원, 최명식)

대전 지역화폐운동 20년, 새로운 도 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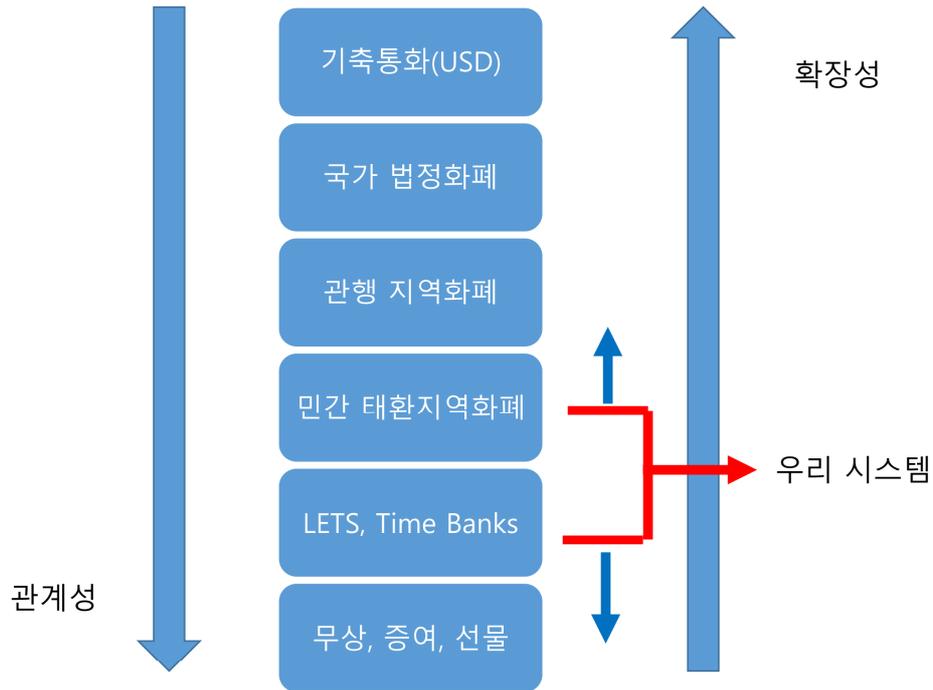
	한발레츠 '두루'	품앗이생활 '품'	지자체
형태	레츠 (거래를 온라인 장부에 기록)	김가우어 (상품권 형식의 종이화폐 발행)	지류+전자지갑+카드 등 다양
도입	1999년	2014년	2019년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혜적 교환체계를 확립하여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 •지역 내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계하고, 주민간 품앗이거래를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합원의 구매를 촉진하여 로컬푸드 및 사회적경제 생산품의 판로를 확대 •카드수수료 등의 거래수수료 비용을 절감 •조합원의 정체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 확보에 용이 •지방정부의 신용을 바탕으로 소비자 및 생산자 확보 용이 •인프라(세금과 시설)를 활용한 유익 확대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맹점과 거래할 수 있는 상품(서비스) 항목이 한정적이어서 확산이 더딤 •거래체계가 복잡, 불편함 •법정화폐와 교환되지 않는 신뢰기반의 교환수단이어서 전면적인 결제수단이 되지 못함 (거래액의 약 30% 한도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행지폐의 위변조 위험성 •발행비용 과다 발생 (위변조 방지 인쇄 필요) •환전과 상품권 보관 등 이용자 불편 초래 •환전, 결제, 지폐 대조 등 화폐관리에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 비효율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회 사용에 그쳐 역외유출 저지력에 한계 •환전비용의 지속발생 •정책변화에 따라 중단될 수 있음

대안

- 기부 포인트, 레츠, 환전방식의 지역화폐를 모두 사용하면서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지자체와 연계한 지역화폐 플랫폼
- 결제 시스템을 넘어, 개별조직을 넘어 지역통합 유통플랫폼 구축
- 기존 지역화폐의 편의성, 신뢰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 호혜거래 시스템 개발

대전 민간주도 지역화폐 시스템 "블록체인 기반 호혜거래 시스템 개발과제"

기존한계		개선과제
• 협소한 거래품목	➔	• O2O 유통 플랫폼 구축
• 화폐 환전불가	➔	• 기부포인트+레츠+환전의 동시 사용 플랫폼 구축
• (민간)재원 및 신뢰 부족	➔	• 지방정부와의 거버넌스, 관행지역화폐와의 연계
• 거래장부 수기관리의 불편함	➔	• 모바일 기반 간편거래 시스템개발
• 보안 기술의 높은 비용	➔	•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소비자	130	700	1,337	1,899	2,470	2,769
사업체	100	380	631	587	593	627
사회프로젝트	5	50	158	200	233	253
순환중인 킴가우어	10.000	50.108	165.648	327.458	498.906	520.514
사회적 프로젝트 기부	1.800	10.498	26.272	39.150	52.128	59.282
킴가우어 매출액	75.873	699.834	2,304.571	3.974.927	5,585.021	6,826.105
킴가우어 순환속도(년)	9.48	16.78	19.35	13.72	11.42	12.82
독일 내 유로 순환속도(년)	6.78	6.21	6.16	4.82	4.42	3.88
독일 내 유로 대비 킴가우어 순환속도의 빠른정도	1.40	2.70	3.14	2.85	2.58	3.31
킴가우어 승수효과	1.11	2.00	2.63	3.10	3.27	3.33

자료: Yasuyuki Hitora (2014). Practices of social and complementary currencies in Europe and the world: With regard to the promotion of social enterprises, ICSEA, 이경수(역) (2014) (아이클라우드협동조합연구동향 2014-07) '유럽 및 세계의 사회보원통화 실천: 사회적기업 촉진과 관련해', 서울: (재)아이클라우드협동조합연구소.

<킴가우어 시스템의 특징과 성과>

- 법정화폐와 환전
- 소비자에서 3%기부권리
- 가맹점에겐 5%환전 차징
- 3개월마다 -2% 감가
- 2013년 기준, 총 유통량 원화 약 90 억원 가치
- 사회적 프로젝트 253개를 선정, 약 7,800만원화 가치 지원
- 최근 금융협동조합 레기오스를 창립해 지역화폐와 법정화폐로 소액대출을 하고 연체 없이 상환하면 이자를 돌려주는 은행으로 발전하고 있다.

지역화폐 협동조합의 설립배경

- 글로벌 대자본 주도의 외생적 발전에 따른 지역사회 부의 역외유출
- 공유경제+디지털경제+금융자본이 결합하는 유통 플랫폼의 독점화
- 지역의 정치경제와 환경의 위기

대안

- 기부 포인트, 레츠, 환전방식의 지역화폐를 모두 사용하면서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지자체와 연계한 지역화폐 플랫폼과 기부플랫폼
- 결제 시스템을 넘어, 개별조직을 넘어 지역통합 유통플랫폼 구축
- 기존 지역화폐의 편의성, 신뢰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바일기반 호혜거래 시스템 개발, 운용

지역화폐 협동조합 현황

- 사업주체인 가맹점(당사자) 중심의 사업자협동조합 2019년 9월 설립
- 시스템 유지비, 비품 구입, 인센티브 등 일부 운영비 지역화폐로 순환
- 한밭레츠, 품앗이마을, 한살림, 민들레의료사협, 사회적경제연구원, NGO지원센터 등 조합에 참여하기로 협약한 CB기업 중심으로 설립하여 초기 가맹점과 소비자를 일부 확보한 상태에서 사업화가능
- 위원회를 통해 가맹점, 소비자, 시민사회 영역의 이슈를 공유하고 지역화폐 확산전략을 도출하여 지자체, 기업 CSR 자금연계



구분	구성
조합원	가맹점 조합원 대표 100명 소비자 조합원 대표 50명 시민사회 (NGO) 조합원 10명
이사회	10명 내외(다중 이해자 대표)
위원회	가맹점 위원회/이용자 위원회/ 시민사회 위원회
사무국	사무국장/조직/사무행정/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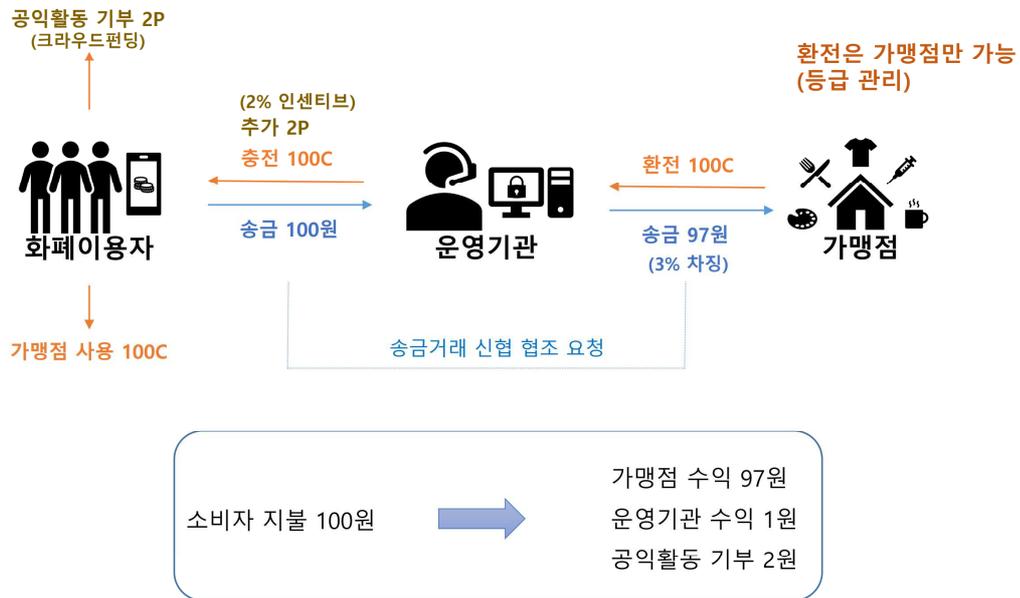
한발페이 사용방법

<https://www.youtube.com/watch?v=M3fzT89z7sU>

운영기관 사업체 구성 모델 가맹점 중심 **사업자협동조합**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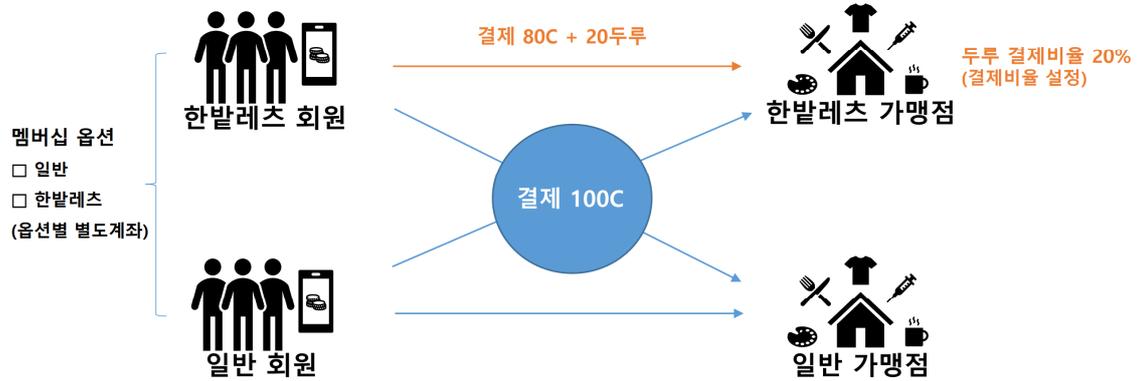
한발페이 충전/환전 방식 및 인센티브/차징



한발페이 출시 1개월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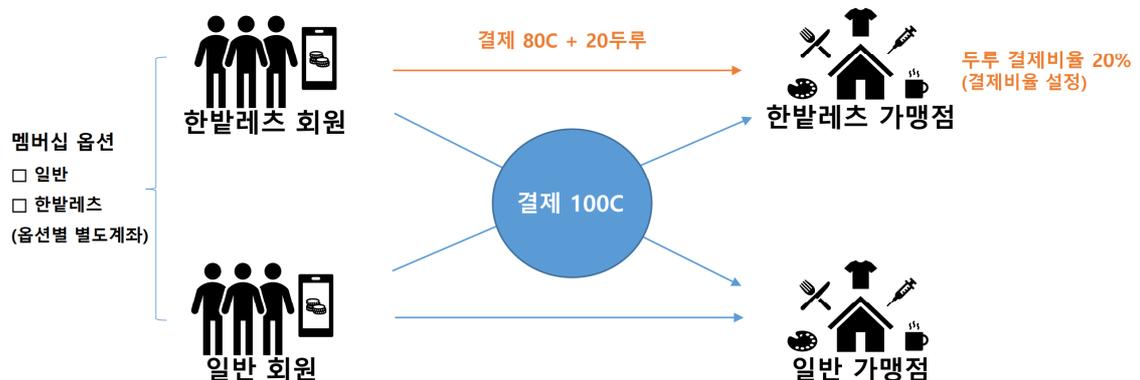
- 2020년 9월 21일 모바일어플 한발페이 출시(소비자용, 가맹점용)
- 2020년말 목표 이용자 1,000명, 가맹점 150
- 가맹점 60곳, 회원 408명(2020년 10월 19일 현재)
- 4개 유형의 전략가맹지역 활동 추진 중

복수 지역화폐의 사용 (김가우어 모델 기본 + 공동체 별 화폐사용 옵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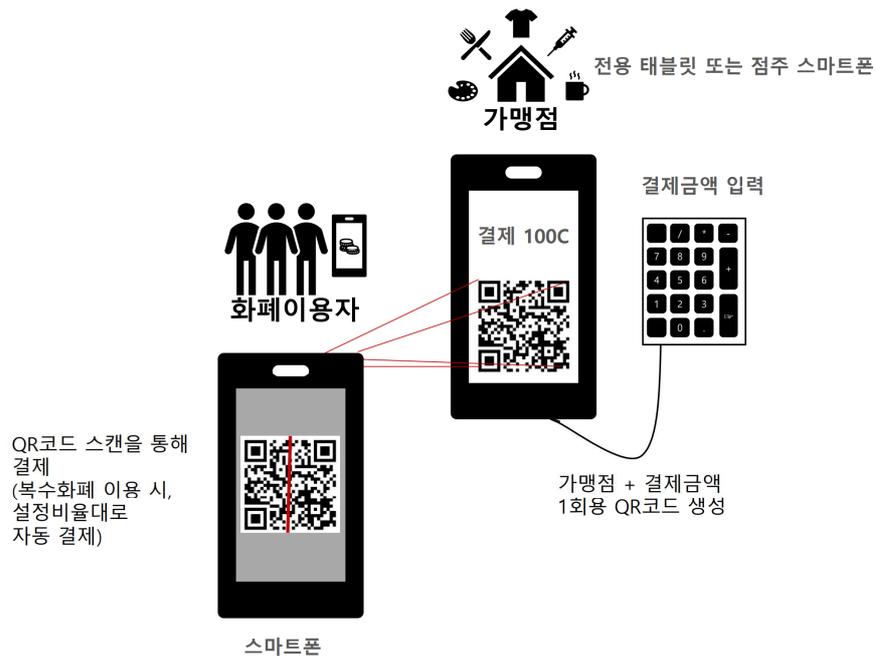
멤버십 별로 기본 계좌는 2개 : 기본화폐 + 기부화폐 + (옵션 화폐)
 초기 개발 시는 한발레츠 두루를 기본옵션으로 개발하되 확장 고려

복수 지역화폐의 사용 (김가우어 모델 기본 + 공동체 별 화폐사용 옵션)



멤버십 별로 기본 계좌는 2개 : 기본화폐 + 기부화폐 + (옵션 화폐)
 초기 개발 시는 한발레츠 두루를 기본옵션으로 개발하되 확장 고려

가맹점 거래 방식 (모바일 기반 APP to APP)



전략가맹지역을 통한 유형별 모델링

<유형 1> -지역화폐+지역먹거리운동

- 한살림대전생협 전매장
- 품앗이생협 매장 3매장

<유형 2> -지역화폐+마을공동체+골목상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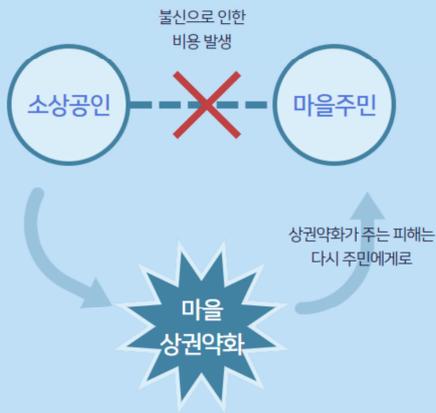
- 관저공동체연합과 인근 가맹점 30여곳
- 선화동 음식거리

<유형 3> 지역화폐+마을공동체+골목상권+커뮤니티케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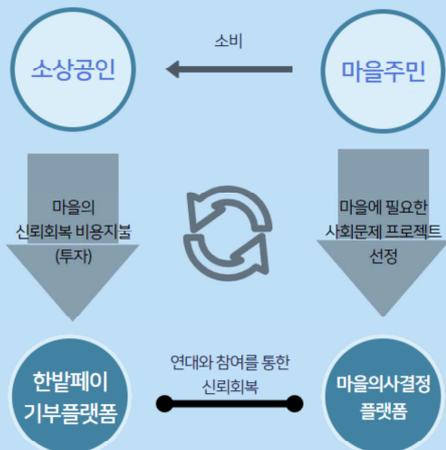
- 법동 민들레의료사협, 한발레츠 인근 가맹점, 마주봄협동조합

<유형 4> 지역화폐+대학교+학생 자원봉사활동+대학인근상가

- 한남대 장학금과 지역사회 활동과 연계



주민과 상인의
호혜적 관계를 통해
마을의 사회적 자본을
구축할 수 있을까?



주민과 상인의
호혜거래를 쌓아가고
마을의 문제까지
해결하는 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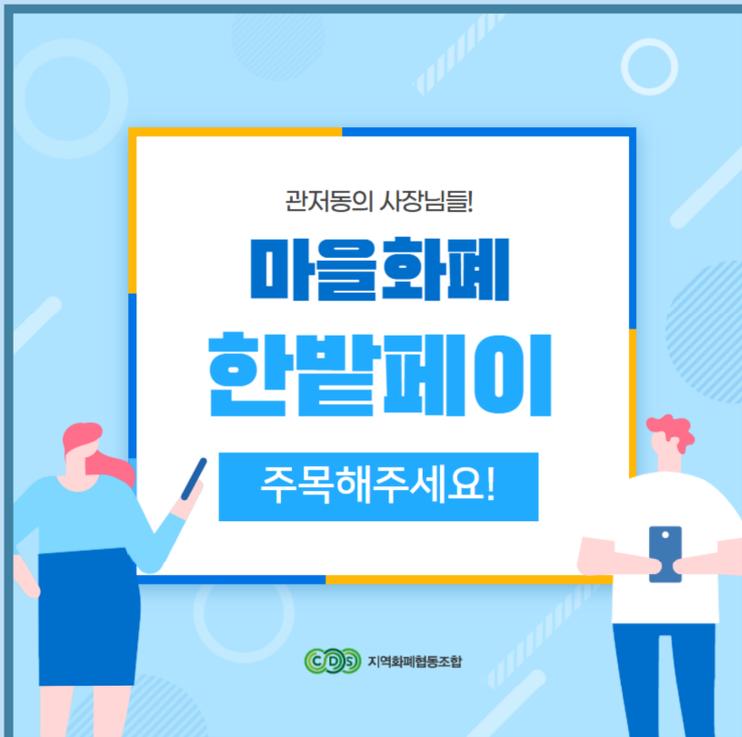
관저동 케이스



소비자 모집을 통해
가맹점 리스트 만들



소비자요청 가맹점 방문,
해당 내용 제시해 가맹점 모집



관저동 상인회에
배포된 카드뉴스

한발페이
HANBAT PAY

관저동을 위한 지역화폐 한발페이를 발행하는 지역화폐협동조합입니다.

- 사용자** 관저에서만 350명의 사용자
- 충전금액** 총 4500만원을 충전 중
- 가맹점** 관저동 가맹점 적극 유치중

계약서 상에서의
실제 가입자 수

일반결제
+ 6개월간CMS합산
4500만원

관저동을 위한 지역화폐 한발페이

가맹점 가입 절차

- 1 가입 및 설치비 없음
- 2 수입금액 환전 시 수수료 3%
(1%는 운영수수료, 2%는 관저마을에 기부)
- 3 수입금을 타가맹점에서 사용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음

수수료 3%

2%의 기부는
관저마을에
직접 되는것이 아님

소비자에게
2%의 수수료를 전달
소비자가
관저로 기부하기를 선택

관저동을 위한 지역화폐 한발페이

가맹점 혜택 소개

- 1 1만명이 보는 관저신문에 가맹점 홍보
(착한가게&한발페이 가맹점)
- 2 소비자 어플에 가맹점으로 소개
- 3 연말 관저X한발페이 영상에 홍보
(youtube, facebook에 게시 예정)
- 4 착한 가게 이미지 획득



관저신문사의
특징을 살린 가맹점 혜택

홍보 / 마케팅

가맹점 가입절차

관저동을 위한 한발페이를 경험해보세요.



STEP 01



한발페이 어플을
설치 후 가입하세요

STEP 02



한발페이 POS 어플을
설치 후 로그인 하세요

STEP 03



사무국에서 승인 후
QR코드 거치대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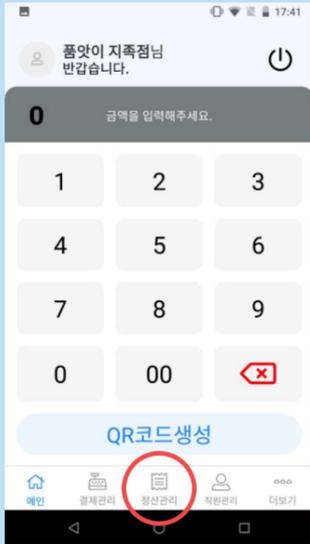
※ 방문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로 연락주세요. ※
관저마을신문사 최석민 010 5407 3948

가맹점 가입 후

- 1) 사무국 승인
- 2) 소비자앱에 등장
- 3) 소비자가 사용
- 4) 환전요청

환전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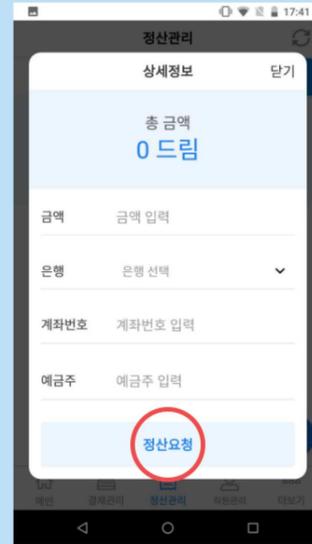
1



2



3



회원모집

쿠폰발부를 하여 회원모집을 할 경우

- 쿠폰 제공 (지역화폐협동조합)
- 쿠폰 수거 (민들레의료생협)

민들레 배포(예정) ▶



◀ 관저동 배포(완료)

민들레만의 가맹점 모집 전략

민들레 직원 설문조사

관계를 통한
가맹점 모집이
가장 효과적

조합원 중
가맹점 점주들과 협업
(민들레를 홍보하는 계기)

가장 많은 이용처 확보

민들레 직원들의
단골 매장을
1인당 2-3곳 확장하기

한밭페이
생태계의
확장

민들레X지역화폐 계약시 내용

01

소비자 350명 모집 (1000만원)

- 일반충전자 300명, 정기결제자 50명(10만원)
- 일반충전자 5명은 정기결제자 1명으로 같음 함

02

가맹점 80개 모집 (500만원)

- 가맹점을 위한 이벤트 필요 (홍보 / 마케팅)

03

호혜소비자 교육 (주관: 지역화폐협동조합)

- 지역화폐 이해를 위한 호혜소비자 교육
- 협조내용: 교육홍보 및 대관

04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

- 제공된 포스터 & 팸플릿
- 민들레 자체 홍보채널 및 개별적 채널을 통한 홍보

2021년의 활동방향

- 2020년 전략가맹지역 유형별 모델을 확대재생산
- 한발페이와 결합한 한발레츠의 레츠 시스템을 동단위로 확대
- 한발페이와 결합한 온라인쇼핑몰과 배송체계 구축
- 대덕이로움, 온통대전과 연계하는 민관협력 사업 전개

대덕이로움과 한발페이 비교

구분	대덕이로움	한발페이
발행주체	지자체	지역화폐 협동조합
발행목적	역외유출 방지, 지역으로 소득분배	시민사회의 사회적자본 강화
지역화폐 유형	법정화폐 환전	법정화폐 환전+LETS+기부
결제방식	모바일 결제(신용카드 기반)	모바일 결제(App to App)
예산	중앙정부+지방정부	정부(산자부)+자기조달
이용자	관할지역 누구나->가맹점	멤버십제도(이용자, 가맹점, NGO)
인센티브	이용자 이용금액의 4~15% 캐시백	이용자 이용금액의 2% 기부
환전 수수료	없음	환전할 경우가맹점 3% 환전 수수료 발생
장점	캐시백을 통한 이용자 확장력	지속가능성
단점	정책변화에 따라 지속가능성 불투명	이용자 확장력이 낮음
핵심성공요인	캐시백+정책발행	사회적 자본

지방정부형 지역화폐의 과제

- **지속가능성** : 정부예산 삭감으로 인센티브가 줄거나 없으면 계속 이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소득에 역진적**
 - 구매력이 있는 부유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는 구조
 -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상점가/식당가를 중심으로 소비되어 소상공인 사이에서의 양극화 심화
- **역외유출의 저지력의 한계** : 지역경제가 글로벌경제에 종속적이므로 역외유출 저지가 일시적이다.
- **정부의존성**: 지방정부가 직접 발행-집행-관리함으로써 민의 참여가 제한적이다.

대안의 방향

지방정부 지역화폐의 문제	대전형 지역화폐의 대안
정부예산이 줄어 인센티브가 없으면 쓰지 않을 것이다?	소비의 힘을 자각하는 '지역경제 서포터즈' 양성
부자에게 더 많은 혜택?	인센티브의 일부를 '기부포인트'로 활용하여 취약계층에게 이전
산업구조상 어차피 역외유출?	O2O 지역기반 유통플랫폼과 연계
정부의존적이다?	시-구-동/민-관 공존 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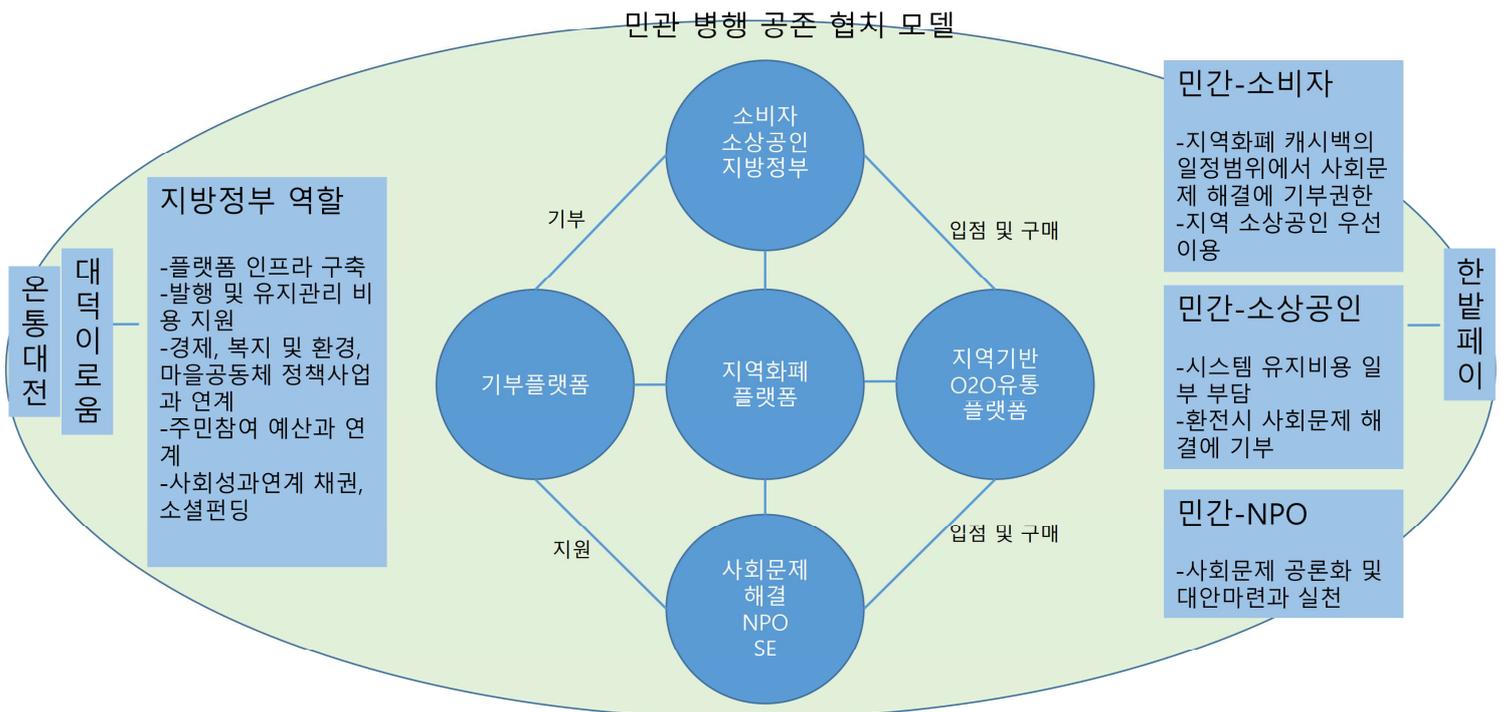
대전형, 혹은 대덕형 지역화폐

- 정의: 대전형 지역화폐란 민관공존, 병행, 협치의 지역화폐로서 민의 자발성과 관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복원을 동시에 추구하는 모델

<특징>

- 시-구-동-민간의 중층적구조
- 기부플랫폼+지역화폐 플랫폼+O2O유통플랫폼의 결합
- 소상공인 외에 시민사회 영역과 결합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
- 민-관 협치구조를 마련하되 민-관의 자기영역을 존중하는 병행, 공존 모델

대전형 지역화폐 운영원리 이해관계자 참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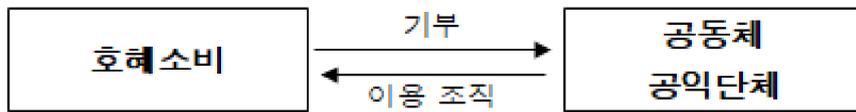
민관협력 실행방안

<호혜소비의 메카도시 선언>

- 지역을 살리는 똑똑한 소비자에 대한 홍보
- 호혜소비 서포터즈 구성과 운영
- 호혜소비 마일리지
- 호혜소비 시민교육

<소비를 통한 기부>

- 사용 인센티브의 일정부분을 기부포인트로 적립
- 기부 시장(플랫폼) 조성 : 다양한 공동체, 단체들이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등록하고, 지역화폐 이용자가 보유한 기부포인트를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함
- 여러 공인단체, 공동체 등이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하여 구성원과 주변에 지역화폐 이용을 독려



민관협력 역할분담



민관협력 역할분담



대덕구 민관협력 시나리오

- 대덕이로움 화폐발행위원회가 민관협치의 주요 의사결정기구가 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민간측 사무국과 상근 실무자를 둔다.
- 민간 사무국은 민관협력의 매개자 역할을 하면서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호혜적 관계망 구축을 위한 조직, 교육, 홍보의 역할을 맡는다.
- 주민자치위원회나 상인연합회, 대학, 마을공동체센터와 연계하여 대덕구 동단위, 상권단위의 지역거점별 조직화나 커뮤니티 케어,푸드플랜과 같은 사회혁신의제와 지역화폐가 결합하도록 한다.
- 이때 대덕이로움, 한발레츠, 한발페이, 타임뱅크 등 민관의 다양한 지역화폐가 공존 협력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한발레츠의 비시장 호혜거래 모델을 동단위에 확산하도록 한다.
- 경제적 혜택을 중요시하는 주민은 대덕이로움을, 사회적기여를 중요시하는 주민은 한발페이를, 품앗이 방식의 비시장 호혜거래를 원하는 주민은 레츠(LETS), 타임뱅크를 병행해서 사용한다.
- 대덕이로움은 말그대로 민관 지역화폐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지역화폐+기부+유통의 토탈플랫폼이자 민관협력 지속가능 모델로 자리매김하면서 대덕구를 이롭게 한다.

감사합니다.

토론문

1. 사회적금융 현황 및 과제

이영석 사무총장
<아산YMCA>

충남 사회적경제 포럼

[사회적금융의 종류와 활용방안 토론]

2020. 11. 5(목)

이영석 (아산YMCA/청그라미)

사회적금융의 종류와 활용방안 토론

충남에서 접근 가능한 사회적금융 종류와 활용방안

충남 사회적경제기금

- **대상**
 - 사회적경제조직
(사회적경제기업 지위 상실후 충남 사회적경제기금 대출상환)
- **대출조건 (신용)**
 - 대출한도: 최대 1억5천만원
 - 대출기간: 5년 이내
 - 상환조건: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 대출금리: 30%(변동금리)

크라우드펀딩

- **정의**
 - 불특정다수(Crowd)로부터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해 자금을 모으는 활동
- **크라우드펀딩 유형**
 - 후원형(리워드)
: 오마이컴퍼니, 텀블벅, 와디즈 등
 - 대출형(P2P)
: 비플러스, 8PERCENT

민간 기금

- **신나는조합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사회적경제융자사업**
 - 기업당 1억원
 - 12개월이하 만기일시상환
 - 정책자금 3억 초과기업제외
- **인천국제공항공사우수사회적경제조직 금융지원**
 - 법인 설립 3년이상 사회적경제조직
 - 최대 1억원 대출(금리1%)

사회적금융의 종류와 활용방안 토론

사회적금융 평가



긍정적인 측면

1

자금공급의 괄목할 만한 양적성장

- 2019년 한해 4,425억원(2,117개소) 실적달성
- 2018년 사회적금융활성화방안이후 급격한성장
- 서민금융진흥원 08년-06년 : 204억원
- 사회적기업특례보증 12~16년 : 309억원
- 중소기업정책자금 10-16년 : 304억원



2

사회가치연대기금, 지역기금 등 다양한 공급 주체 개발과 사회적금융 담론 활성화

- 한국사회가치 연대기금 출범 및 운영
- 사회적금융증개기관 확대
- 재단법인 밴드
- 서민금융진흥원 사업 (PPL, 신나는조합 등)
- 기술보증기금 소셜벤처 지원
- 지역기금 조성 (서울시, 화성시)



사회적금융의 종류와 활용방안 토론

사회적금융 평가



문제점

▪ 정책 걸음마 단계

- 사회적금융 공급규모에 비해 현 실적으로 체감 어려움
- 사회적기업 중심(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지원 미비)
- 사회적금융 컨트롤 타워 부재

▪ 민간 역량 정체

- 금융자본이 사회적경제 지원의 분기점이 된것은 긍정적이지만, 기존의 공공과 민간의 자금으로 사회적금융을 공급하던 기관 활용 및 협력 미흡
- 대출과 다른 방식의 금융방식 개발 요원



▪ 공급 프로그램 취약

- 단순 정량화된 평가모형
- 재무관리역량 달성 장벽 높음 (차입금의존도, 매출액증가, 자금조달력, 자산건전성 등 비율균등)
- 인내자본과 관계금융 실종
- 짧은 거치/상환기간 제약
- 조직이 대출한도가 없는 경우 불가능
- 금융공급자 사회적경제이해도 결여

사회적금융 개선방안

사회적금융 정책기반강화

- 사회적금융 거버넌스구축
- 사회적금융 정책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 사회적 금융리더/전문가 양성



사회적금융 생태계 구축

- 사회적금융중개기관 활성화
- 투자, 크라우드펀딩, P2P 등 공급채널다각화
- 평가모형 개선
- 단기상품 개발
- 지역자조기금 조성

사회적금융

결론

- ✓ 아직까지 사회적금융은 수도권중심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은 정보와 접근성의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사회적금융을 지역 사회적경제조직에 연계할 수 있는 충남 사회적금융 전달체계 마련이 요구됨
- ✓ 지역에서 사회적경제 기금은 기계적 재무관리위주의 평가를 탈피하고, 급할때 사용할 수 있는 단기상품 개발과 대출한도 규모를 확장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도 대안임
- ✓ 충남 사회적 금융 종사자와 전문가들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가치와의 균형감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 ✓ 공공 또는 민간 CSR과 연계한 충남형 크라우드, P2P 펀딩을 연계, 충남형 임팩트 투자, 도시재생, 농촌, 지역 청년정착 자금지원 등 새로운 충남 사회적금융 공급방식의 프로모션이 필요함
- ✓ 충남은 사회적경제기금이 신설되어 지역 사회적금융의 단초는 마련되었지만, 관계금융과 인내자본관점의 지역 사회적금융생태계를 위한 로드맵과 청사진이 필요한 시점

감사합니다

토론문

2. 자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안

정경록 회장

<충남사회적기업협의회>

충남 사회적경제 포럼 “자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안”

충남사회적기업협의회 정경록

1. 충남 자조기금 현황

1-1. 천안사회경제연대(천사연)

가. 경과

- 천안사회경제연대 설립하면서 사업계획에 자조기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판로기금촉진위원회 설치되어 6명의 운영위원이 있음)
- 올해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에 빠져 있을 때 3월 연대사업으로 “마스크 사회적극복 Project” 진행하여 면마스크 300개 제작하여 돌봄노동자에게 지원
- 운영위원들이 분담하여 회원사의 고충을 확인하였고 서로 지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대기금 모금에 대해서 안이 나옴.
- 연대기금 모금 시작. 5월 3주간.
(상호부조를 통한 자립과 자조성 확보를 위해 민간 당사자 스스로의 결사를 높여보고 이 과정에서 사회적 자본을 만들어 가려 시작. 스스로를 돕는 지속적 협동자조기금 운영의 발아점이 되길 희망)
- 판로기금촉진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심의, 선정하여 배분함.

나. 모금현황

		금액	비율
사회적기업 및 종사자	15	1,3010,000	74
사회적경제영역	14	3,830,000	22
후원자	4	670,000	4
합 계	33	1,7510,000	

다. 배분결과 : 9개 기업 150만원, 총사협 400만원 총 17,500 지급

라. 시사점

- ① 원탁회의, 운영위원회 참석율이 높음.
- ②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운영위원회가 직·간접적으로 전체 회원사와 소통
- ③ 판로기금 사업위원회를 통해 투명한 선정 및 배분
- ④ 코로나로 인해 덜 어려운 기업이 더 어려운 기업을 돕겠다는 연대와 신뢰가 바탕

1-2. 충남사회적기업협의회(총사협)

가. 경과

- 코로나로 인해 연기된 총회가 6월에 개최되어 신임 회장단 선출
- 회원사들이 단톡방을 통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호소
- 천사연에서 코로나 연대기금의 일부를 총사협으로 후원
- 천사연의 기금을 종자돈으로 삼아 '함께응원 기금' 모금
- 집행부(회장단+사무처)에서 배분 회의 진행하여 배분 결정.

나. 모금현황

		금액	비율
사회적기업 및 종사자	11곳	8,750,000	55%
사회적경제영역	13곳	6,630,000	41%
후원자	8곳	650,000	4%
합 계	32곳	16,030,000	100%

다. 배분결과 : 11개 기업에게 100만원씩 지급. 남은 금액은 재난상황 대비와 이후 운영방안 고민 중.

라. 시사점

- ① 코로나로 인해 광역단위의 회원활동이 활발하지 못함.
- ② 기금사업에 대해 전체 회원사들과 충분히 공유되지 못함.
- ③ 다들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으로 배분신청이 많지 않았음.
- ④ 기초네트워크가 튼튼해야 광역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음

2. 충남사회적기금 현황

가. 신청 현황

구분	신청 현황		심사현황				심사 중
	기업 수	신청 액	심사완료				
			기업 수	승인현황			
			기업 수	승인 액	부결		
계	65	6,727	48	35	2,342	13	17
사회적가치 평가 대출	47	6,227	34	26	2,082	8	13
소액·신속·간편 대출	18	500	14	9	260	5	4

3. 자조기금 활성화를 위한 필요조건

가. 코로나 이후의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사회안전망 실현의 기회였음

- 전 세계적인 재난 상황에서 망연자실 기울어가는 기업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공동의 노력
- 천사연, 총사협에서는 그래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업들과 월급생활자들의 후원금을 모아 자조기금 마련.
- 혼자 잘살면 무슨 재민겨~
-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하겠지만 함께 버틸 수 있는 비빌언덕이 됨.

나. 연대와 신뢰를 통한 사회적 자본 마련.

- 지속적인 소통과 연대사업을 통해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적 자본이 마련된다면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스스로를 도울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음.
- 한기협에서 공제사업단(밴드)을 만들 당시 지역설명회를 통해 회원사 모집하였고, 기금의 회원이 되는 것은 한기협에 대한 신뢰와 연대의식이 있었음.
- 천사연과 총사협의 기금 사업의 진행은 회원사의 신뢰와 연대가 주요한 성공요인이라고 봄. 당사자들의 연대가 활성화 되는 것이 지역사회경제의 성공을 이끌어 내는 것.

다. 당사자의 자구적 노력은 학습, 소통

- 부처형과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의 선정 기준 하향화로 다양한 사회적기업 진입
- 사회적경제 영역의 양적인 성장에 발 맞춰 질적 성장을 끌어내야 함.
- 사회적기업의 정체성, 사회가치에 대한 인식의 내재화 필요
- 지원금에 대한 시혜성, 도덕적 해이의 문제제기로부터 정당성 획득 위해 학습 필요
- 이를 바탕으로 자조기금에 대한 이해를 높여 내고 서로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조직

라. 자조연대기금 운영체계 구축

- 지역화폐와 자조금융을 연계하는 시스템 고려
- 타 지역의 사례에서 당사자 조직의 자조기금에 지자체 매칭기금을 지원하여 기금의 활성화 추구
- 기업의 사회공헌기금 등을 활용하여 자조기금의 활성화 지원

토론문

3. 지역화폐의 의미와 진화

이동근 사무국장
<홍동면 주민자치회>

<지역화폐의 의미와 진화>에 대한 토론문

이동근(‘홍성지역화폐거래소 앞’ 운영위원)

20여년전 지역화폐가 소개된 이래, 지역사회에서 지역화폐운동은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었다. 하지만 민간의 역량만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던 중 최근 지자체마다 ‘지역화폐’라는 명칭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등에 업은 지자체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의 골목상권을 회복하자는 목적으로 엄청난 액수의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전국의 거의 모든 지자체가 지역상품권을 유통시키거나 준비 중에 있으며, 특히 올해 5월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지역상품권의 발행정책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렇듯 지역상품권(또는 지역화폐 개념)이 늘어난 계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다. 첫째, 경기도의 기본소득 지급실험에 지역상품권(지역화폐라는 용어를 사용)이 사용되면서 지역화폐에 대한 인식이 널리 확산되었다. 둘째,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을 맞아 지역상품권(지역화폐)이 지자체의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되면서 누구에게나 지역화폐라는 용어는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농민수당(또는 농민기본소득)의 지급수단으로 지역상품권(지역화폐)을 사용하자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어서 지역상품권(지역화폐) 발행은 더욱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국면에서, 이번에 김성훈 선생님의 <지역화폐의 의미와 진화>라는 발제문을 읽으면서 생각난 간단한 소감과 몇 가지 토론거리를 적어본다.

먼저, 한국에서 민간주도의 지역화폐운동의 대표적 사례인 대전의 한발레츠가 지역화폐협동조합의 한발페이를 통해 좀더 확장, 심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서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 충남 홍성에서는 2017년부터 <홍성지역화폐거래소 앞>이라는 민간의 운영조직을 설립하면서 이전까지 산발적으로 해오던 지역화폐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는데, 한발페이의 존재는 많은 힘이 될 것 같다. 그리고 각자의 도생도 어려워 시도조차 엄두내지 못했던, 민간 지역화폐 운동주체 간 연대협력방안도 이번 기회를 맞아 구체적으로 찾아보면 좋겠다.

토론거리 1

: ‘지자체 주도의 지역상품권’과 ‘민간의 지역화폐’가 어떻게 만나야 할까? 대덕구의 민관협력 시나리오에는 민과 관의 지역화폐와 지역상품권이 공존(대덕이로움, 한발페이, 한발레츠, 타임뱅크 등)하면서 병행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보다 더 결합도를 높여서 아예 하나의 지역상품권을 운영할 수 있는 모델을 검토해보면 어떨까 싶다.(현재로서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역화폐 발행은 어려울 테니, 기존의 상품권 순환비율을 높인다면 마치 지역화폐를 발행한 것처럼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가맹점에서 쓰는 상품권이라는 전형적인 구도를 벗어나서, 개인 간의 거래, 기업 간의 거래, 그리고 지자체 지출수단이나 공과금 납부수단 등으로 사용영역을 확대하여 '한국은행권으로 환전되지 않는' 지역상품권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한정된 지역에서 1회 사용에 그치지 않고 계속 순환된다면, 그것은 이미 상품권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화폐의 기능을 담당할 것이며 그만큼 지역경제는 탄탄해지고 지역공동체는 활성화되지 않을까?

(민간측 지역화폐협동조합이 운영실무를 맡고 지자체가 운영경비를 지원한다. 지역화폐협동조합은 로컬푸드와 지역화폐/교육과 지역화폐/돌봄과 지역화폐/사회적경제기업과 지역화폐 등 지역 내 연결망을 강화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역할을 행정 이 직접 수행하기에는 여러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토론거리 2

: 지역화폐를 말할 때, 지역금융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상품권과 교환되는 원화(법정화폐)는 지역에서 공공대출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상품권으로 교환되어 은행계좌에 머무는 원화는, 상품권정책이 계속 되는 한, (최대로 따진다면) 상품권 발행량만큼 은행계좌에 머물게 된다. 태환지역화폐도 마찬가지이다. 지역화폐가 지역에서 계속 순환유통 된다면, 그만큼의 원화를 공공금융의 씨앗자금으로 이용가능하다. 1회성의 상품권보다, 순환하는 지역화폐는 그에 상당하는 원화환전액을 좀더 안정적으로 지역금융에 운용할 수 있다.

얼마 전 언론기사에 따르면, 지자체의 지역상품권 발행 대행업체가 이 충전액의 운용수익과 이자수익, 그리고 낙전수익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만일 그 대행업체에 문제가 생긴다면 지자체가 큰 손실을 떠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상품권이든 지역화폐든 그 충전액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쓸지 민관이 좋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김성훈 선생님의 발제에는 이 부분이 언급되지 않았는데, 한발페이드 이에 대한 활용방안을 검토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토론거리 3

: 지역화폐에서 지역의 범위는 언제나 중요한 요소이다. 어떤 경우는 광역단위를, 어떤 경우는 기초단위 또는 그 이하의 규모를 상정하기도 한다. 대덕구 내부에 복수의 지역화폐가 있을 경우, 단일한 지역화폐로 통합할지 아니면 복수의 지역화폐를 병행할지 앞서 토론거리로 제시했지만, 좀더 큰 규모인 충남에서 지역상품권(지역화폐)을 설계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한 가지 아이디어를 이 자리에서 꺼내어본다. 충남의 15개 시군, 그리고 그 이하 읍면동에 각각 지역상품권과 지역화폐가 유통되고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까? 물론 각각의 지역범위를 벗어나면 사용이 불가하도록 한다면 그만이겠지만, 충남을 하나의 지역으로 묶어 이쪽 지역주민이 인접지역에서도 상품권과 화폐를 사용가능하도록 할 수 있을까? 그 아이디어는 이렇다. 지류는 어렵겠지만, 전자적으로는 얼마든지 구현 가능할 것 같다. 그러면 충남 홍성군 홍동면에서 유통되는 지역화폐 '잎'을 예로 들어보자. 지역을 정도에 따라

나누고 이에 맞게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하는 구상이다. 흥동면에서 사용하면 10%, 흥동면을 벗어나서 홍성군 안에서 사용하면 5%, 아예 홍성군을 벗어나서 타 시군에서 사용하면 3%, 충남 밖에서는 사용불가로 세팅하는 것이다.

위 예제 말고도 차등적용해서 호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은 더 상상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거주지를 중심으로 반경 10킬로미터 이내에서 사용할 경우 10%, 20킬로미터 이내에서는 7%, 50킬로미터 이내에서는 3% 등.